국어 문학 · 개념 이해와 적용

문학 적용 13

한 작품 안에서 개념 연결하기

대치동 재우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예시·작품은 개념 학습을 위해 새로 쓴 창작 자료입니다. 시조와 옛이야기 양식의 자료도 학습을 위한 현대 창작물입니다. 등장인물은 허구입니다.

네 질문으로 보는 개념 연결

E01
개념을 여러 개 찾았는데, 어떻게 연결하나요?

근거 → 개념 → 효과를 한 줄로 이었나?

E02
앞과 뒤에서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같은 대상의 처음·계기·나중을 나란히 놓았나?

E03
선택지에 맞는 말이 들어 있어도 틀릴 수 있나요?

선택지의 앞(단서)·뒤(설명)를 모두 확인했나?

E04
내 해석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요?

근거가 닿는 만큼만 말했나?

1장 여러 개념을 연결하는 질문

E01 개념을 여러 개 찾았는데, 어떻게 연결하나요?

짧은 답 개념 이름에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효과를 붙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여 어떤 상황·마음을 드러내는지 하나의 설명으로 잇습니다.

한 줄 공식 **작품의 말(근거) → 표현 방법의 이름(개념) → 이 장면에서 하는 일(효과: 분위기·정서·태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청각적 심상이 있다’까지만 말하는 것은 ‘이 국에 소금이 들어 있다’까지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소금이 국을 어떤 맛으로 만들었는지 말해야 맛을 설명한 것이지요. 표현 방법도 이 장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까지 말해야 설명이 끝납니다.

‘청각적 심상이 있다’는 표현의 이름을 찾은 말입니다. 무엇이 들리는지, 그 소리가 다른 장면과 어울려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지까지 연결하면 작품에 맞는 설명이 됩니다. 같은 표현 장치도 작품마다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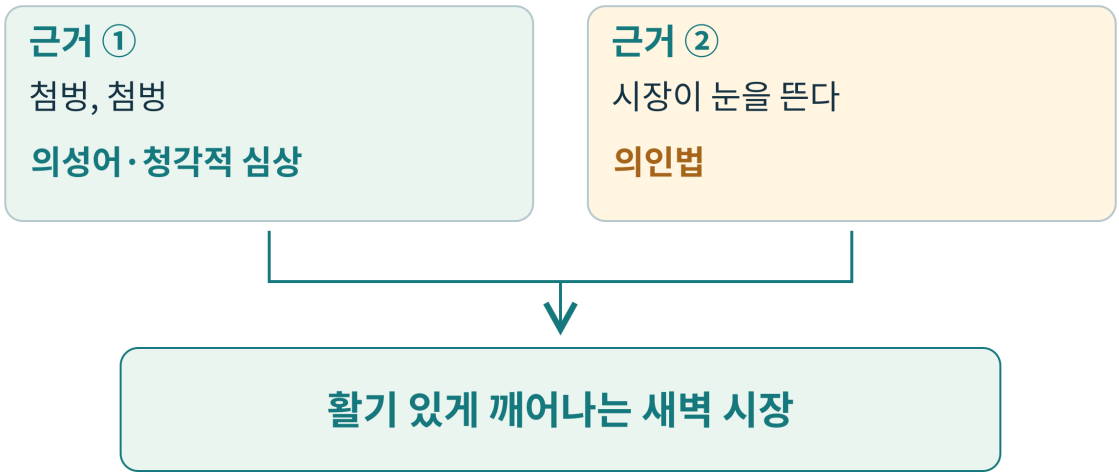
창작 예시

> 빗물을 딛는 장화마다
> 첨벙, 첨벙
> 새벽 시장이 눈을 뜬다.

예시 뜯어보기

근거	개념	이 예시에서 읽는 효과
‘첨벙, 첨벙’	의성어(소리를 흉내 낸 말)로 만든 청각적 심상, 반복	물을 딛는 움직임이 들리는 듯해 시장에 오가는 발걸음을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시장이 눈을 뜬다’	사람이 아닌 시장을 사람처럼 나타낸 의인법	새벽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살아나는 사람처럼 보여 준다.

근거와 표현 방법을 장면의 효과로 잇기



근거를 연결하면 소리와 의인 표현이 함께 시장이 깨어나는 활기 있는 장면을 만듭니다. '청각적 심상이니까 쓸쓸하다'처럼 개념 이름만 보고 분위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소리 표현도 E03의 깨진 컵 소리처럼 장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 이렇게 고쳐요
의인 표현을 찾았으니 효과 설명도 끝났다.	무엇을 사람처럼 나타내어 이 장면의 어떤 모습을 살렸는지 덧붙입니다.

E02 앞과 뒤에서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짧은 답 같은 대상·상황을 대하는 말·행동·판단을 비교합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은 그대로인지 나누어 봅니다.

한 줄 공식 **처음의 기준 → 계기가 된 경험 → 나중의 말·행동·판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틀린 그림 찾기는 거의 같은 그림 두 장을 나란히 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앞뒤 비교도 같은 대상을 놓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찾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대상을 놓고 비교하면 '달라진 점'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앞뒤에 같은 사물이 나와도 그 사물을 보는 생각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소를 옮기거나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까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달라진 점을 설명하려면 처음과 나중의 근거를 함께 찾습니다.

창작 예시

〔가〕 도자기 공방에서 입은 앞치마의 큰 주머니가 보기 싫었다. 떼어 버리면 더 깔끔할 것 같았다.

〔나〕 흙 묻은 손을 닦으려는데 수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선생님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주셨다. 나는 그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다음번에는 내 주머니에도 수건을 넣었다.

비교할 것	처음	계기	나중
주머니를 보는 기준	보기 싫고 거슬리는 부분	선생님이 주머니에서 꺼내 준 수건으로 흙 묻은 손을 닦음	작업 중 필요한 것을 담아 두는 자리
행동	떼어 버리고 싶어 함	같은 경험	다음번에 내 주머니에도 수건을 넣음



주머니의 모양은 같고, 쓰임을 보는 기준이 달라짐

근거를 연결하면 선생님이 주머니에서 꺼내 준 수건으로 손을 닦은 경험이 뒤의 행동과 이어집니다. 주머니가 새것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쓰임을 알아보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어떤 물건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 이렇게 고쳐요
뒤에도 같은 주머니가 있으므로 생각도 그대로이다.	같은 대상을 보는 기준과 그에 따른 행동이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E03 선택지에 맞는 말이 들어 있어도 틀릴 수 있나요?

짧은 답 맞는 단서를 가져왔더라도 그 단서에 붙인 설명이 틀릴 수 있습니다. 누가·언제·왜·어떤 효과로 연결했는지 확인합니다.

방법 한 줄 단서와 설명이 이어진 선택지는 빗금(/)을 그어 앞부분(작품에서 가져온 단서)과 뒷부분(그 단서에 붙인 설명·효과)으로 나누고, 두 부분에 각각 ○·×를 표시합니다. 둘 다 ○여야 작품에 맞는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에서는 작품과 맞지 않는 설명을 골라야 합니다.

한 줄 공식 **단서가 있는가? + 그 단서와 설명의 연결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물쇠 비밀번호는 네 자리 중 세 자리가 맞아도 한 자리가 틀리면 열리지 않습니다. 선택지도 작품에서 가져온 단서가 맞아도, 그 단서에 붙인 설명이 틀리면 틀린 선택지입니다.

개념 이름이나 인용한 말만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같은 선택지 안에서도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은 틀릴 수 있습니다.

창작 예시

> 텅 빈 식탁에서 컵 하나가 떨어져 깨졌다. 쨍그랑. 나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쪽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판단할 문장 "'쨍그랑'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강조한다."

확인	판정과 근거
'쨍그랑'이라는 소리 표현이 있는가?	있다. 의성어 '쨍그랑'이 컵이 깨지는 소리를 들리는 듯 나타낸다(청각적 심상).
그 소리가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강조하는가?	아니다. '텅 빈 식탁',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쪽'과 연결하면 홀로 있는 상황에 주목하게 한다.

단서는 맞아도 설명은 틀릴 수 있음

앞부분 · 단서 ◯
‘쨍그랑’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의성어가 컵이 깨지는 소리를 들리는 듯 나타냄

/

뒷부분 · 설명 ✗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강조한다

‘텅 빈 식탁’ ·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쪽’과 어긋남

◯ + ✗ = 작품과 맞지 않는 설명

근거를 연결하면 표현 장치의 이름은 맞아도 효과를 이 장면과 어긋나게 붙였으므로 전체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리의 느낌만 떼지 않고 앞뒤 상황과 함께 읽습니다.

×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 이렇게 고쳐요
선택지에 작품의 말과 맞는 개념이 들어 있으므로 전체 설명도 맞다.	그 말에서 선택지의 결론까지 이어지는 관계가 작품과 맞는지 살핍니다.

E04 내 해석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요?

짧은 답 작품을 읽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세 칸으로 나뉩니다. ① 글에 그대로 적힌 것, ② 적힌 내용을 근거로 짐작할 수 있는 것, ③ 글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해석은 ①과 ②까지만 말합니다. 또 누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언제의 일인지를 바꾸거나 넓히지 않습니다.

한 줄 공식 **작품의 근거 → 그 근거가 받치는 만큼의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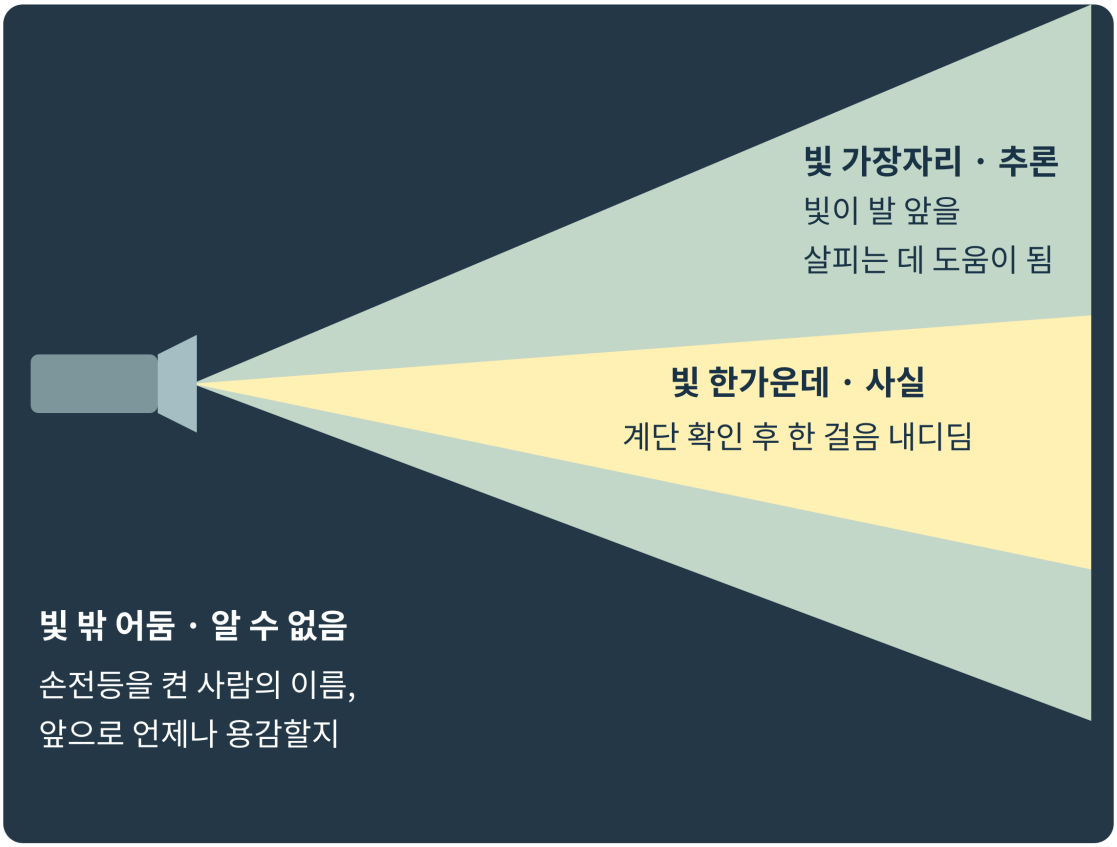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곳에서 손전등을 비추면 빛이 똑바로 닿은 곳은 또렷하게 보이고, 빛 가장자리는 흐릿하게 짐작되며, 빛 밖은 보이지 않습니다. 작품의 근거가 바로 손전등 빛입니다. 해석은 빛이 닿은 만큼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작 예시

> 정전된 복도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켰다. 나는 발 앞의 계단을 확인하며 한 걸음 내디뎠다.

구분	이 예시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
글에 적혀 있음(사실)	누군가 손전등을 켰고, 나는 계단을 확인하며 한 걸음 움직였다.
근거로 짐작할 수 있음(추론)	손전등의 빛이 발 앞을 살피며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글만으로는 알 수 없음	손전등을 켠 사람의 이름, 정전의 원인, 앞으로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용감하게 행동할지.

손전등 빛처럼, 근거가 닿는 만큼



근거를 연결하면 ‘발 앞의 계단을 확인하며 한 걸음 내디뎠다’에서 어둠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까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행동만으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거나, 이후에도 언제나 용감하게 행동한다고 넓혀 말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상상과 작품으로 뒷받침한 해석은 구별합니다.

×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 이렇게 고쳐요
있을 법한 일이므로 작품의 내용으로 확정한다.	그 판단을 받치는 문장이 있는지 찾고, 없으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남깁니다.

2장 작품에 연결하기

작품 A 「강 건너 불빛」 시

저녁 강가에서 나는
물 건너 창 하나를 바라본다.
건너온다는 네 말은 아직 물 위에 있고
나룻배의 불빛은 굽이 뒤에 숨었다.

찰박, 찰박
돌계단 아래 물이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나는 주머니 속 두 손을 잠시 펴
차가운 난간을 쥔다.
저 창의 불이 꺼지기 전
네가 건너올 길을 한 번 더 바라본다.

어휘 **나룻배** 강을 건너는 작은 배. **굽이** 강이나 길이 휘어 굽은 곳.

Q01 **A의 화자가 처한 상황과 태도를 함께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강가에서 상대를 떠나보낸 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② 강 건너 상대에게 이별을 알리려고 큰 소리로 말을 건넨다.
③ 강가에서 상대를 기다리며 그가 올 길을 거듭 살핀다.
④ 상대를 찾으러 나룻배에 올라 강을 건너려 한다.

Q02 **A의 5~6행에서 소리를 표현한 방식과 효과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반복되는 물소리와 말하는 듯한 물의 모습으로 화자가 상대를 기다리는 강가의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 낸다.
② 물소리의 반복으로 화자가 상대와 이미 주고받고 있는 대화를 재현한다.
③ 물의 움직임을 보여 주므로 화자가 기다림을 즐거운 놀이로 여긴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같은 소리를 반복하여 강물이 멈추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순간을 드러낸다.

Q03 **A의 '건너온다는 네 말은 아직 물 위에 있고'를 앞뒤 내용과 연결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대가 도착하여 전한 말을 강물 위에 글씨로 써 놓았다는 뜻이다.
② 상대의 말을 잊기로 하여 그 약속을 강물에 흘려보낸다는 뜻이다.
③ 화자가 상대의 말을 듣지 못해 약속의 내용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④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대를 기다리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Q04 A의 2행과 10행에 반복된 '바라본다'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처음에는 상대를 기다리지만 끝에서는 상대에 대한 관심을 거두었음을 보여 준다.

② 처음에는 건너편 창을, 끝에서는 상대가 건너올 길을 바라보아, 상대를 향한 시선과 기다리는 마음이 끝까지 이어짐을 보여 준다.

③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강가에서 이미 도착한 상대의 얼굴로 바꾼다.

④ 처음과 끝의 행동이 같으므로 그 사이에 물소리나 감각을 넣은 의미가 사라진다.

Q05 A의 근거로 뒷받침하기 <u>어려운</u> 해석은?

① 화자는 강가에서 건너편 창과 상대가 올 길을 바라보고 있다.

② 상대는 나룻배를 놓쳤기 때문에 약속한 때에 오지 못하고 있다.

③ 화자는 난간의 차가움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서 기다린다.

④ 마지막에도 화자의 관심은 상대가 건너오는 일에 향해 있다.

작품 B 「젖은 모래」 시

1 아침에는 바다를 탓했다.
2 밤새 밀려온 물이
3 어제 새긴 내 이름을 가져갔다.

4 나는 마른 막대기를 들고
5 젖은 모래 앞에 다시 섰다.
6 물이 물러난 자리에
7 작은 발자국들이 먼저 와 있었다.

8 나는 내 이름을 쓰려던 손을 멈추고
9 발자국 옆에 물길 하나를 그었다.
10 들어온 물은 그 길을 따라
11 아직 남은 웅덩이와 만났다.
12 바다를 탓하던 말이 조금 낮아졌다.

Q06 B의 처음과 끝에 나타난 태도를 바르게 비교한 것은?

① 처음부터 물이 이름을 지우는 일을 반기며 끝까지 같은 기쁨을 유지한다.

② 자기 이름을 되찾으려는 마음이 점점 강해져 끝에서는 물의 흐름을 막는다.

③ 발자국을 발견한 뒤 그 흔적을 지우려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원망을 더 크게 드러낸다.

④ 이름을 지운 바다를 원망하다가 다른 흔적에 주목하며 원망이 누그러진다.

Q07 B의 '작은 발자국들이 먼저 와 있었다'의 표현과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발자국의 주인이 화자에게 직접 말을 걸어 물길을 내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② 발자국이 화자의 이름을 일부러 지웠다고 하여 갈등의 원인을 바다에서 사람에게 옮긴다.

③ 발자국을 '먼저 와 있던' 존재처럼 나타내어, 화자보다 앞서 이곳에 머문 다른 존재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④ 발자국의 모양을 정확한 크기로 제시하여 누구의 발자국인지 확인하게 한다.

Q08 B의 8~11행에 나타난 행동을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기 이름을 다시 쓰려던 손을 멈추고 발자국 옆에 물길을 내는 행동에서, 화자의 관심이 자기 흔적에서 다른 존재의 흔적으로 옮겨 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물길을 그은 것은 자기 이름을 오래 남기려고 물이 들어오는 방향을 바꾸는 행동이다.

③ 물길을 낸 행동은 원망이 커진 결과이므로 처음과 끝의 말은 같은 세기로 이어진다.

④ 물길을 내는 행동만 있으므로 화자가 무엇을 새롭게 바라보는지는 앞뒤와 연결해 읽을 수 없다.

Q09 B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처음의 원망에는 자기 이름이 물에 지워졌다는 경험이 연결된다.

② 자기 이름을 다시 쓰려던 손을 멈춘다는 점에서 행동의 방향이 달라진다.

③ '어제 새긴 내 이름'은 화자가 모래 위에 남기려 했던 자기 흔적이다.

④ 화자는 발자국의 주인을 알아보고 그 사람과 함께 물길을 만든다.

Q10 B의 앞부분(1~3행)과 뒷부분(9~11행)에서 '물'이 각각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지 쓰고, 이 두 모습의 대비가 12행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하세요.

요소	답
① 앞부분(1~3행)의 물이 하는 일과 근거	
② 뒷부분(9~11행)의 물이 하는 일과 근거	
③ 두 모습의 대비와 화자의 태도 (12행)	

작품 C 「돌담 곁」 시조

초장 높은 산 큰 소나무 / 푸른빛을 자랑하나
중장 돌담 밑 작은 풀도 /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종장 어즈버 눈길 낮추니 / 이곳에도 봄이로다

어휘 **어즈버** '아'처럼 감탄할 때 내던 옛말(감탄사).

표시 /는 각 장의 앞 구와 뒤 구를 나눈 것입니다.

Q11 **C에서 시선의 이동과 중심 생각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낮은 곳의 풀에서 높은 산으로 눈길을 옮겨 큰 나무만 봄을 누린다고 생각한다.
② 큰 나무에서 작은 풀로 눈길을 옮겨 낮은 곳의 봄도 발견한다.
③ 높은 산과 돌담을 번갈아 보다가 꽃이 없는 곳으로 떠나려 한다.
④ 같은 소나무의 모습을 계절별로 나열하여 겨울이 지나가는 시간을 보여 준다.

Q12 **C의 초장·중장·종장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종장에서 일어난 일을 먼저 말하고 초장·중장에서 그 까닭을 거슬러 설명한다.
② 큰 소나무와 작은 풀의 모습을 차례로 늘어놓다가 종장에서 두 대상의 우열을 최종 결정한다.
③ 초장과 중장에서 서로 대조되는 두 대상을 차례로 제시하고, 종장에서 감탄사와 함께 봄을 발견한 깨달음을 드러내며 마무리한다.
④ 초장과 중장에서 모두 작은 풀을 부정한 뒤 종장에서 그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다.

Q13 **C에서 '큰 소나무'와 '작은 풀'을 함께 제시한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크기와 위치의 대비로 작은 풀의 봄도 눈여겨보게 한다.
② 크기가 큰 대상은 가치가 없고 작은 대상만 가치 있다고 구분한다.
③ 소나무가 풀을 가려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한 원인을 밝힌다.
④ 두 대상이 같은 높이에 있어 눈길을 옮길 필요가 없음을 보여 준다.

Q14 **C의 '어즈버'와 '봄이로다'를 종장의 내용과 연결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높은 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명령을 강하게 전한다.
② 봄이 실제로 왔는지 몰라 상대에게 정보를 묻는다.
③ 작은 풀을 보지 못한 후회만 남아 더 이상 살피지 않겠다고 말한다.
④ 눈길을 낮추어 이곳에서도 봄을 발견한 반가움과 감탄을 드러낸다.

Q15 C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이곳에도'는 높은 산에는 봄이 없고 돌담 밑에만 봄이 있다고 선을 긋는 말이다.

② '작은 풀도'는 작은 존재 역시 꽃을 피운다는 점을 드러낸다.

③ 눈길을 낮추는 행동은 낮은 곳의 대상을 새로 발견하는 것과 이어진다.

④ 큰 대상과 작은 대상을 함께 보면서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시선의 범위가 넓어진다.

작품 D 「녹음 버튼」 소설

〔가〕 교실 방송에 내보낼 2분 분량의 소개를 녹음하던 날이었다. 지후는 첫 문장을 세 번이나 틀렸다. 나는 벽시계를 보았다. 점심시간 안에 파일을 보내야 했다. 지후의 말이 막힐 때마다 내 손가락은 정지 버튼으로 먼저 갔다.

〔나〕 "내가 읽을까?" 지후는 대본으로 눈을 내렸다. "조금만 더 해 볼게." 나는 대답 대신 점심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다. 내 입으로 읽으면 금방 끝날 것 같았다.

〔다〕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복도 끝에서 지후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후는 아무도 없는 벽을 보고 첫 문장을 읽고 있었다. 같은 곳에서 막힌 뒤에도 대본을 접지 않았다. 나는 모퉁이에 서 있다가 발소리를 낮추어 교실로 돌아왔다.

〔라〕 지후가 들어왔을 때 나는 긴 문장 사이에 빗금을 그어 놓은 대본을 내밀었다. "한 문장씩 이어 볼까?" 이번에는 말이 잠깐 끊겨도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마지막 말끝이 조금 흔들렸다. 나는 지우기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그대로 떼었다. 저장된 파일에서는 지후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나왔다.

어휘 **빗금** 비스듬히 그은 줄(/).

Q16 D의 〔가〕~〔나〕에서 '나'가 지후의 낭독을 대하는 기준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지후의 목소리를 남기는 일을 앞세워 처음부터 말이 끊겨도 녹음을 계속한다.

② 시간보다 방송의 인기를 앞세워 지후에게 청중의 반응을 물어본다.

③ 빨리 끝내는 일을 앞세워 지후 대신 자신이 읽는 방법을 생각한다.

④ 녹음을 그만두고 지후와 점심을 먹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Q17 D의 〔나〕에 드러난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을 바르게 읽은 것은?

① '나'는 지후가 더 연습하길 바라고 지후는 바로 제출하려 하여, 연습 시간을 두고 차이가 있다.

② '나'는 대신 읽어 끝내려 하고 지후는 더 해 보려 하므로, 녹음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③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읽기를 미루므로, 누가 책임을 피할지를 두고 다툰다.

④ 지후는 '나'의 낭독을 고치려 하고 '나'는 이를 거절하므로,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

Q18 D에서 〔다〕의 복도 장면이 뒤의 행동에 하는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후가 녹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나' 혼자 파일을 완성할 이유를 마련한다.
② 마감 시간이 이미 지났음을 알려 주어, 더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진 상황을 설명한다.
③ 지후가 대본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 주어, '나'가 원래 대본으로 되돌리는 갈등을 시작한다.
④ 지후의 계속되는 연습을 보게 하여 낭독을 돕는 쪽으로 바뀔 계기를 마련한다.

Q19 D의 '내가 읽을까?'와 '한 문장씩 이어 볼까?'를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두 말 모두 질문이므로 지후의 낭독을 멈추게 하려는 뜻도 같다.
② 자신이 지후를 대신하려는 제안에서, 지후가 계속 읽을 수 있도록 방법을 바꾸는 제안으로 달라진다.
③ 지후가 '나'에게 낭독을 부탁하는 말에서 지후가 혼자 읽기를 거절하는 말로 달라진다.
④ 지후를 돕던 말에서 제출을 포기하자는 말로 달라져 갈등이 커진다.

Q20 D의 서술 방식과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나'가 자기 생각을 밝히므로 처음에 빨리 끝내려 했던 기준을 직접 알 수 있다.
② '나'는 직접 듣고 본 지후의 연습을 들려주어 뒤의 선택을 이해할 단서를 준다.
③ 지후가 눈을 내린 순간의 생각을 직접 서술하여 속마음을 확정한다.
④ 지후가 더 시도하고 싶어 한다는 점은 '조금만 더 해 볼게'라는 말로 뒷받침된다.

작품 E 「철망의 작은 문」 소설

〔가〕 늦가을 오후, 우진은 운동장을 나서려다 철망 바깥에 선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공을 안고 작은 문 쪽을 바라보았다. 우진은 가방끈을 고쳐 메다가 문 쪽으로 걸음을 돌렸다.

〔나〕 지난봄 전학 왔을 때, 우진도 그 철망 밖에 오래 서 있었다. 안에서는 아이들이 공을 주고받았다. 작은 문은 닫혀 있었다. 우진은 저 안은 이미 서로 아는 아이들의 자리라고 생각했다. 공이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도 발끝으로 밀어 돌려주고는 돌아섰다.

〔다〕 다음 날 한 아이가 철망 너머에서 우진을 불렀다. "이 문, 쇠고리가 자꾸 걸려. 같이 밀어 줄래?" 우진이 바깥에서 밀자 그 아이도 안쪽에서 손잡이를 당겼다. 문이 열렸다. 우진은 그날 처음 안으로 들어가 함께 공을 찼다. 닫힌 문을 보며 혼자 정했던 생각이 떠올라 얼굴이 조금 뜨거웠다.

〔라〕 지금 우진은 작은 문의 손잡이를 잡았다. 여전히 쇠고리가 걸렸다. 그는 바깥의 아이를 보며 손짓했다. "이쪽 문이 잘 안 열려. 같이 밀어 볼래?" 아이가 공을 내려놓고 문 앞으로 다가왔다.

어휘 **쇠고리** 문을 걸어 잠그는 쇠로 된 고리.



Q21 E에서 사건이 제시된 순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늦가을의 행동에서 지난봄의 경험으로 옮겨 갔다가 다시 현재의 문 앞 장면으로 돌아온다.
② 전학 온 봄부터 늦가을까지 모든 장면을 실제 시간 흐름대로만 나열한다.
③ 철망 안의 아이가 겪은 과거에서 우진이 상상하는 미래로 이동한다.
④ 처음부터 끝까지 늦가을 하루에 일어난 일만 보여 준다.

Q22 E에서 닫힌 작은 문을 대하는 우진의 판단과 행동이 달라진 과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처음부터 단순한 쇠고리 문제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뒤의 초대도 처음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다.
② 문이 새것으로 교체되어 열기 쉬워졌기 때문에, 우진도 다른 아이를 부를 수 있게 된다.
③ 함께 공을 찬 뒤 운동장 안을 자기만의 자리로 여기고 다른 아이를 밖에 머물게 한다.
④ 함께하기 어려운 자리로 여기다가 문을 열고 어울린 뒤 다른 아이도 부른다.

Q23 E에서 쇠고리가 걸리는 '작은 문'이 지닌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끝까지 열리지 않는 문으로, 우진이 처음의 판단을 끝내 바꾸지 못함을 나타낸다.
② 끝에서 철망과 함께 없어지는 문으로, 아이들 사이의 벽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나타낸다.
③ 혼자서는 잘 열리지 않지만 안팎에서 함께 밀고 당기면 열리는 문으로, 서로 손을 내밀 때 가까워지는 관계를 나타낸다.
④ 오래전부터 고장 나 있던 문으로, 학교 시설을 서둘러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낸다.

Q24 E의 문단 순서를 〔나〕 → 〔다〕 → 〔가〕 → 〔라〕로 바꾸면 생기는 차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들려주는 순서만 바꾼다고 가정합니다.)

① 현재 행동을 먼저 궁금하게 만든 뒤 지난봄 경험으로 설명하는 효과가 원래보다 강해진다.

② 지난봄 경험을 먼저 알게 되어, 늦가을에 우진이 문 쪽으로 돌아가는 행동의 배경을 미리 이해하게 된다.

③ 현재 바깥의 아이와 지난봄 우진을 부른 아이가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이 확정된다.

④ 쇠고리가 걸린다는 사실이 마지막 장면에서 처음 드러나게 되어, 결말이 더 놀랍게 느껴진다.

Q25 〔나〕에서 우진은 '저 안은 이미 서로 아는 아이들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을 '안쪽 아이들이 실제로 우진을 거절했다'는 사실로 볼 수 있을까요? 먼저 판정을 쓰고, 〔나〕에서 우진이 한 행동과 〔다〕에서 일어난 일을 근거로 설명하세요.

요소	답
① 판정 — 그 생각은 누구의 무엇인가	
② 〔나〕의 행동과 〔다〕의 사건으로 본 근거	

작품 F 「말을 재는 저울」 소설 · 옛이야기 양식

〔가〕 옛날 어느 고을에 큰비가 내려 둑이 무너졌다. 원은 사람들을 불러 놓고 고을을 위해 가장 무거운 약속을 하는 이에게 상을 주겠다고 했다. 마침 길을 지나던 노파가 놋저울을 내려놓았다. "약속을 말하고 이 접시에 입김을 불어 보시오. 지킬 뜻이 담긴 말은 무게가 생길 것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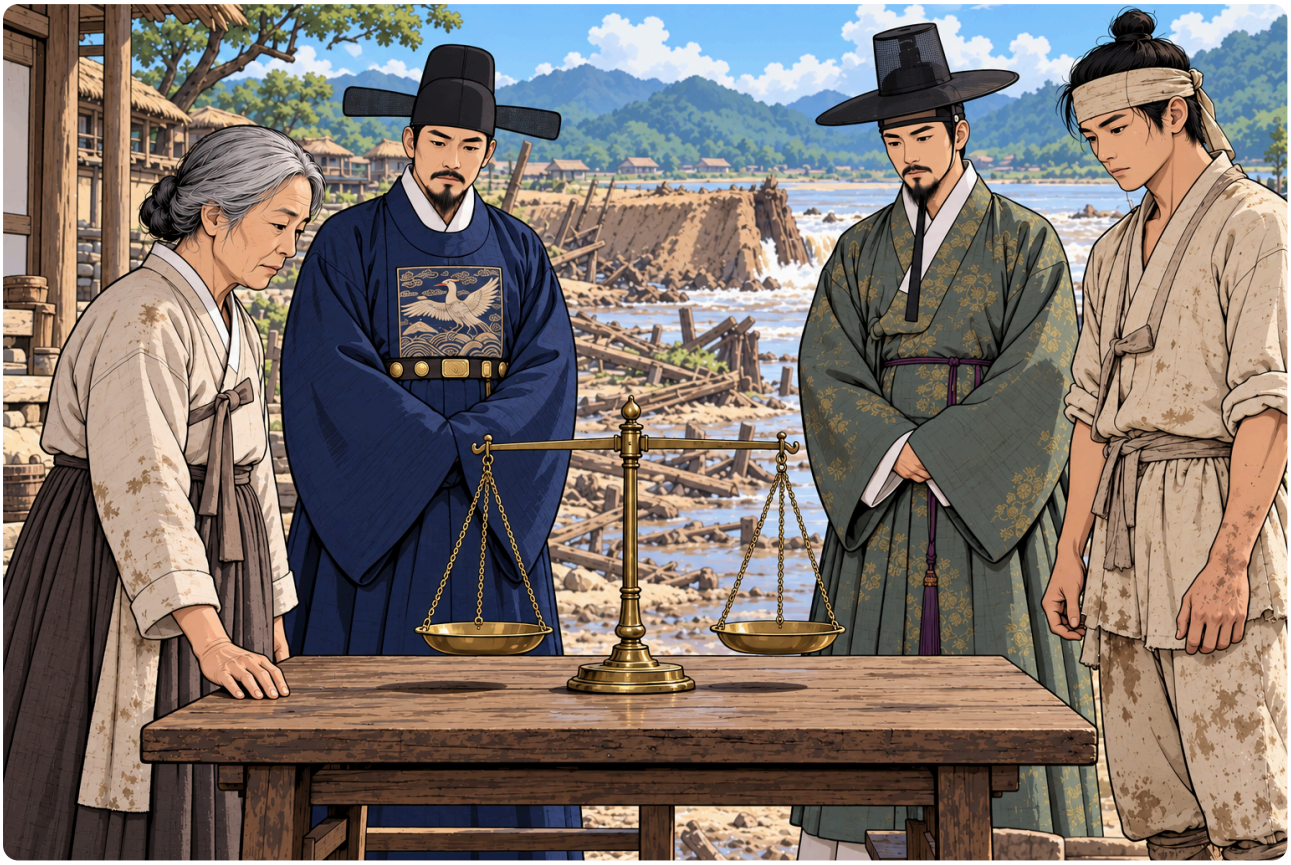
〔나〕 부자가 앞으로 나섰다. "원님의 지혜 덕에 이 고을이 편안하오니, 내 곳간의 곡식을 모두 내놓겠소." 부자는 원의 칭찬만 얻으면 될 뿐, 곳간 문을 열 생각은 없었다. 그가 접시에 입김을 불었지만 저울은 기울지 않았다. 원은 헛기침을 했다.

〔다〕 돌을 다듬던 젊은이가 앞으로 나왔다. "내일 해 뜨면 동쪽에 쌓인 돌부터 둑으로 옮기겠소." 입김이 닿자 접시가 아래로 내려갔다. 젊은이는 굳은살이 박인 손으로 빈 접시를 다시 살펴보았다.

〔라〕 원은 저울을 뒤집어 보더니 노파에게 도로 내밀었다. "고장 난 물건으로 사람을 가리지 마시오." 그러고는 부자를 자기 곁에 앉혀 놓고 '원님의 지혜'라는 말을 한 번 더 해 보라 했다. 젊은이는 상을 기다리지 않고 둑 쪽으로 걸어갔다.

〔마〕 노파는 저울을 보자기에 쌌다. "저울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구려." 원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부자의 자리를 더 가까이 당겨 주었다.

어휘 **원** 고을을 다스리던 관리. **놋저울** 놋쇠로 만든 저울. **둑** 물이 넘치는 것을 막으려고 쌓은 것. **곳간** 곡식 같은 물건을 넣어 두는 곳. **헛기침** 마음에 들지 않음 등을 나타내려고 일부러 하는 기침. **가리다** 여럿 가운데서 하나하나 따져 골라내다.



Q26 **F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흐름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부자가 곡식을 내놓은 결과 둑이 복구되고, 원은 그 일을 저울로 확인한다.

② 원이 저울을 고친 뒤 두 사람의 말을 다시 재어 젊은이에게 상을 준다.

③ 두 사람이 약속의 양을 겨룬 뒤, 원은 많은 곡식을 말한 부자에게 저울의 결과에 따라 상을 준다.

④ 둑이 무너져 약속을 겨루는 자리가 열리고, 저울이 부자가 아닌 젊은이의 약속에 기울자, 원은 저울이 고장 났다며 탓한다.

Q27 **F에서 원의 모습을 통해 비판하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약속보다 자신을 높이는 말을 반기며 판단하는 태도이다.

② 말과 실천의 차이를 의심하여, 말이 큰 부자에게 직접 곡식을 내놓으라고 재촉하는 태도이다.

③ 자신을 칭찬하는 부자를 경계하여, 저울의 판단에 따라 젊은이의 뜻을 먼저 인정하는 태도이다.

④ 두 약속의 차이가 드러난 뒤 두 사람을 같은 자리에 앉혀 동등한 상을 나누는 태도이다.

Q28 **F에서 약속에 무게가 생기는 비현실적 설정이 하는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많은 곡식을 약속할수록 실제 무게도 반드시 커지는 계산 방법을 알려 준다.

② 겉으로 들리는 말의 크기와 별개로, 지킬 뜻의 차이를 저울의 움직임으로 보이게 한다.

③ 말의 내용보다 입김을 세게 부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④ 약속의 진실 여부를 독자가 알 수 없도록 두 사람의 결과를 같은 모습으로 숨긴다.

Q29 F에서 부자의 속마음을 서술한 부분이 독자에게 주는 정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자가 말한 대로 곡식을 내놓을 준비를 끝냈음을 확인하게 한다.
② 부자가 속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먼저 알려 저울이 다시 기울 때까지 마음의 변화를 따라가게 한다.
③ 부자의 말과 실제 뜻이 다름을 미리 알게 하여, 저울이 기울지 않는 결과와 원의 반응을 비교해 읽게 한다.
④ 원과 노파가 모두 부자의 속마음을 똑같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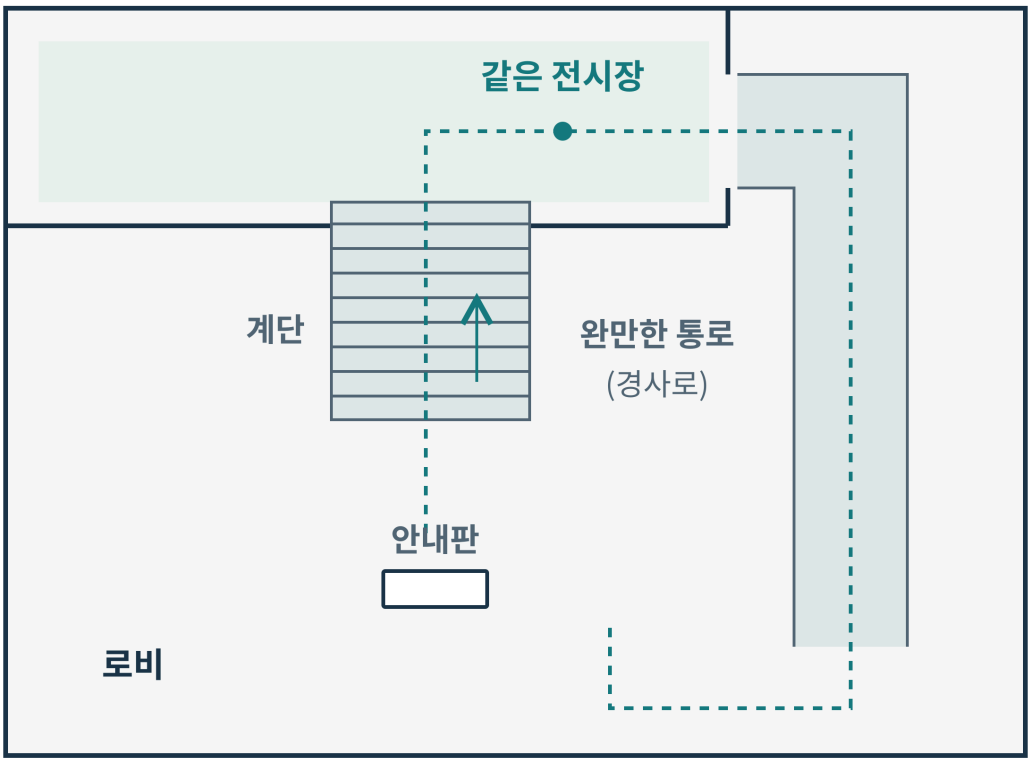
Q30 F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노파의 말은 저울의 접시를 더 무겁게 바꾸라는 구체적인 수리 방법을 알려 준다.
② 젊은이는 상을 기다리기보다 둑 쪽으로 걸어가 자신이 약속한 일을 하러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③ 원이 부자의 자리를 더 가까이 당기는 행동은 앞서 드러난 판단 태도를 끝에서도 이어 간다.
④ 노파의 말은 문제를 저울의 고장만으로 돌리는 원의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작품 G 「화살표 하나」 극

등장인물 유나, 태오.
장소 전시장 로비. 앞쪽에는 계단이, 오른쪽에는 완만한 통로가 있다.

전시장 무대 배치도



점선은 계단과 완만한 통로가 모두 같은 전시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가〕

(유나가 계단 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하나를 안내판에 붙인다. 태오는 상자를 실은 작은 수레를 밀고 들어온다.)

태오 전시장, 어느 쪽이야?

유나 안내판 봐. 계단으로 올라가면 바로야.

태오 오른쪽 통로도 전시장으로 이어지지 않아?

유나 맞아, 그쪽으로도 갈 수 있어. 그런데 화살표가 여러 개면 복잡하잖아. 가까운 길만 남겼어.

〔나〕

(태오가 수레를 계단 앞까지 밀었다가 멈춘다. 앞바퀴가 첫 계단에 닿는다.)

태오 참 친절하네. 갈 수 없는 길만 알려 주고.

(태오는 웃지 않고 수레의 바퀴와 계단을 번갈아 가리킨다.)

유나 아, 바퀴가…….

태오 수레를 밀고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해?

(유나가 안내판을 보았다가 오른쪽 통로를 본다.)

〔다〕

유나 가까운 길만 남기느라 다른 길을 지웠네.

(유나가 화살표를 떼어 낸다. '계단'과 '완만한 통로'라고 쓴 두 화살표를 각각의 방향에 맞게 붙인다.)

태오 자, 이번에는 이 안내판 보고 가 볼게.

(태오가 오른쪽 통로로 수레를 민다. 유나는 안내판 옆을 비켜 통로를 열어 준다.)

어휘 **완만하다**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다.

Q31 **G의 〔나〕에서 수레의 앞바퀴가 첫 계단에 닿는 지시문이 하는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태오가 전시 물품을 계단에 내려놓고 전시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② 안내판이 가리킨 길을 수레가 그대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눈앞의 동작으로 드러낸다.

③ 유나의 마음을 서술자가 직접 풀이하여 반성의 내용을 관객에게 전한다.

④ 태오가 계단을 이미 올라갔다는 결과를 보여 주어 뒤의 대사와 모순을 만든다.

Q32 **G에서 유나와 태오의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유나는 수레가 통로로 가기를 바라고 태오는 계단으로 옮기려 하므로, 어느 길이 편한지를 두고 맞선다.

② 유나는 오른쪽 통로가 막혔다고 알고 태오는 계단이 막혔다고 알아, 건물의 고장 위치를 두고 맞선다.

③ 간단하고 가까운 안내를 앞세운 기준과 수레로 이용할 길도 필요하다는 기준이 맞선다.

④ 태오는 화살표를 모두 없애자고 하고 유나는 화살표를 남기려 하므로, 안내판의 필요성을 두고 맞선다.

Q33 G에서 안내판의 화살표가 〔가〕와 〔다〕에서 달라지는 것이 극에서 하는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갈등의 원인이던 '화살표 하나'가 두 길을 알리는 화살표로 바뀌어, 갈등이 풀렸음을 관객이 눈으로 확인하게 한다.

② 화살표가 둘로 늘어나 안내판이 화려해졌음을 보여 주어, 유나가 장식에 관심을 두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③ 계단 화살표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보여 주어, 유나가 처음의 안내 방식을 끝까지 고집함을 드러낸다.

④ 두 화살표가 서로 다른 전시장을 가리키게 되어, 두 인물이 각자 다른 곳으로 가게 됨을 보여 준다.

Q34 G에서 태오가 한 '참 친절하네. 갈 수 없는 길만 알려 주고.'의 표현과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제로 도움을 받은 고마움을 친절하다는 말로 직접 전한다.

② 유나의 생각을 대신 서술하여 가까운 길만 남긴 까닭을 설명한다.

③ 태오 스스로 길을 잘못 고른 일을 자책하며 자기 선택을 돌아본다.

④ 친절하다는 겉말과 반대로, 갈 수 없는 길만 알린 안내를 비판한다.

Q35 G의 〔다〕에서 유나의 대사 "가까운 길만 남기느라 다른 길을 지웠네."를 말하지 않고 공연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다〕에 이미 있는 유나의 동작 두 가지를 골라, 그 동작들로 어떤 태도를 보여 줄 수 있는지 설명하세요.

요소	답
동작 1과 드러나는 뜻	
동작 2와 드러나는 뜻	
두 동작으로 보여 주는 태도	

작품 H 「같은 소리」 수필

〔가〕 나는 생각이 막히면 펜의 버튼을 눌렀다. 딸깍, 딸깍. 긴 탁자 맞은편에서 책을 읽던 동생이 그 소리를 멈춰 달라고 했다. 나는 "이 정도 소리는 괜찮잖아."라고 답했다. 동생이 책장을 조금 세게 넘기면 먼저 조용히 하라고 했으면서도 그랬다.

〔나〕 며칠 뒤 동생이 내 펜을 빌렸다. 내가 긴 문장을 읽는 동안 맞은편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문장의 앞부분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만하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던 때, 동생의 손에 들린 익숙한 펜이 보였다.

〔다〕 나는 동생이 예민해서 함께 공부하기 어렵다고 속으로 여겼다. 이제 보니 나는 내 소리에는 너그럽고 동생의 소리에는 엄격했다. 내 손에서 나면 배경으로 지워 버리던 소리를, 남의 손에서 나자 방해라고 불렀다. 동생을 참아 주는 사람인 듯 혼자 생각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라〕 그 뒤로 생각이 막히면 버튼을 누르려던 손을 펴서 탁자에 놓았다. 동생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할 일도 여전히 있었다. 다만 그 말을 하기 전에 내 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보았다. 같은 소리가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던 내 기준부터 살피고 싶었다.

Q36 H에서 겪은 일과 그 일에 붙인 생각을 바르게 구별한 것은?

① 같은 펜을 알아본 일은 성찰이고, 자기 기준이 불공평했다는 말은 겪은 소리만 기록한 것이다.
② 딸깍이라는 말은 동생의 마음을 직접 밝히고, 부끄러웠다는 말은 동생의 행동만 기록한다.
③ 문장을 다시 읽은 일은 경험이고, 자기에게 너그러웠다는 말은 판단이다.
④ 자신에게 너그러웠다는 말은 동생의 평가를 옮긴 것이고, 끝의 행동은 그 평가에 반대하는 선택이다.

Q37 H에서 자기 기준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남이 내는 소리에 방해받다가 그것이 자신도 누르던 펜의 소리임을 알아보는 경험이다.
② 동생이 '이 정도 소리는 괜찮잖아'라고 먼저 말하자 그 판단에 동의하는 경험이다.
③ 펜의 소리가 나지 않게 되어 자신의 집중력이 달라졌다고 확인하는 경험이다.
④ 동생이 자신의 예민함을 먼저 사과하여 글쓴이가 동생을 용서하는 경험이다.

Q38 H의 제목 「같은 소리」를 작품 전체와 연결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리가 같으면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다는 법칙을 확인하게 한다.
② 같은 말로 동생을 꾸짖는 일을 반복하여 동생의 버릇을 고치는 방법을 강조한다.
③ 내 소리에 익숙해진 동생의 변화를 내세워 두 사람이 같은 판단에 이르는 과정을 강조한다.
④ 소리의 주인에 따라 달라지던 자기 기준을 돌아보는 뜻과 이어진다.

Q39 H의 근거가 뒷받침하는 범위를 <u>벗어난</u> 해석은?

① 글쓴이는 동생의 책장 소리를 줄이라고 하면서 자기 펜 소리에는 다른 기준을 댔다.
② 동생도 자신의 기준이 불공평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했다고 확정한다.
③ 끝에서도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할 일은 남아 있어, 남의 소리에 아무 요구도 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니다.
④ 〔나〕에서 글쓴이는 맞은편에서 나는 딸깍 소리 때문에 문장의 앞부분을 여러 번 다시 읽는다.

Q40 H에서 고백적 성격이 드러나는 속마음과, 성찰이 끝의 행동으로 이어진 모습을 각각 설명하세요. 속마음은 〔다〕, 행동은 〔라〕의 근거와 연결하세요.

요소	답
고백한 속마음과 근거	
성찰과 끝 행동의 연결	

정답·해설

빠른 정답표

문항	정답	문항	정답
Q01	③	Q21	①
Q02	①	Q22	④
Q03	④	Q23	③
Q04	②	Q24	②
Q05	②	Q25	서술형
Q06	④	Q26	④
Q07	③	Q27	①
Q08	①	Q28	②
Q09	④	Q29	③
Q10	서술형	Q30	①
Q11	②	Q31	②
Q12	③	Q32	③
Q13	①	Q33	①
Q14	④	Q34	④
Q15	①	Q35	서술형
Q16	③	Q36	③
Q17	②	Q37	①
Q18	④	Q38	④
Q19	②	Q39	②
Q20	③	Q40	서술형

Q01 해설

정답 ③

직접 근거

- A 3행: 「건너온다는 네 말은 아직 물 위에 있고」
- A 9~10행: 「저 창의 불이 꺼지기 전 / 네가 건너올 길을 한 번 더 바라본다.」

연결 판단 건너오기로 한 말은 있지만 도착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화자는 상대가 올 길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기다림과 상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함께 읽을 수 있다.

Q01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건너오기로 한 상대를 기다리는 상황을 이별의 결심으로 바꾸었다.
②	× **적절하지 않음** — 화자가 소리 내어 이별을 알리는 행동은 없으며 도착할 길을 살핀다.
③	○ **적절함** — 상대가 건너온다는 말과 길을 다시 바라보는 행동을 함께 연결했다. **← 정답**
④	× **적절하지 않음** — 화자는 강가에서 난간을 쥐고 바라볼 뿐 배에 오르는 행동은 없다. 나룻배의 불빛은 굽이 뒤에 숨어 보이지 않는다.

연결 개념 화자·상황·정서 / E01·E04

Q02 해설

정답 ①

직접 근거

- A 5~6행: 「찰박, 찰박 / 돌계단 아래 물이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연결 판단 의성어(소리를 흉내 낸 말) '찰박'은 물소리를 들리는 듯 나타내는 청각적 심상을 만든다. 물이 말을 되풀이한다는 의인법과 반복이 어울려, 화자가 상대를 기다리는 강가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그려 낸다.

Q02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함** — 소리의 반복과 말하는 물의 모습을 화자가 머무는 기다림의 장면에 연결했다. **← 정답**
②	× **적절하지 않음** — 실제 상대의 대사는 제시되지 않았다. 말하는 듯한 물과 상대를 혼동했다.
③	× **적절하지 않음** — 물의 움직임만으로 즐거움이라는 정서를 확정했다. 앞뒤에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대를 살피는 행동이 있다.
④	× **적절하지 않음** — 반복해서 들리는 물소리를 완전한 정지와 침묵으로 뒤집었다.

연결 개념 의성어·청각적 심상·반복·의인법·상황 / E01·E03

Q03 해설

정답 ④

직접 근거

- A 3행: 「건너온다는 네 말은 아직 물 위에 있고」
- A 10행: 「네가 건너올 길을 한 번 더 바라본다.」

연결 판단 '아직'과 '한 번 더'를 이어 읽으면 약속한 도착을 기다리는 상태가 계속됨을 알 수 있다. 말이 물 위에 있다는 표현을 물리적 사실로만 읽지 않는다. 5행의 의성어 '찰박'이 소리를 들려주는 표현이라면, 3행은 상대의 말이 물 위에 머무는 듯 나타낸 비유적 표현이다.

Q03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비유적 표현을 실제로 강물에 쓴 글씨로 바꾸고 도착 여부도 앞당겼다.
②	× **적절하지 않음** — 마지막에도 상대가 올 길을 바라본다. 약속을 버린다는 해석은 그 행동과 어긋난다.
③	× **적절하지 않음** — 건너오겠다는 약속의 내용은 화자가 알고 있다. 도착이 이루어졌는지와 약속 내용을 아는지를 혼동했다.
④	○ **적절함** — 말로 전한 약속과 아직 상대의 도착을 기다리는 상황을 연결했다. ← 정답

연결 개념 비유적 표현·문맥·기다림 / E01·E04

Q04 해설

정답 ②

직접 근거

- A 2행: 「물 건너 창 하나를 바라본다.」
- A 10행: 「네가 건너올 길을 한 번 더 바라본다.」

연결 판단 처음에는 건너편 창을, 끝에서는 상대가 올 길을 본다. 세부 대상은 달라도 상대를 기다리는 상황 안에서 시선이 이어진다.

Q04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끝에서도 상대가 올 길을 다시 본다. 반복된 행동의 의미를 반대로 읽었다.
②	○ **적절함** — 행동의 반복을 처음과 끝의 대상·상황에 연결했다. ← 정답
③	× **적절하지 않음** — 끝의 시선은 상대의 얼굴이 아니라 상대가 올 길에 향한다.
④	× **적절하지 않음** — 중간의 청각적 심상과 촉각적 심상은 화자가 기다리는 강가의 장면을 구체화한다. 반복이 다른 표현의 역할을 없애지는 않는다.

연결 개념 반복·처음과 끝·정서의 지속 / E02

같은 동사가 반복된다는 사실만으로 수미상관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미상관은 작품의 처음과 끝에 같거나 비슷한 시구가 대응하는 구성입니다. 이 문항에서는 2행과 10행의 대상은 달라지지만 같은 동사 '바라본다'가 반복되어 기다림이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Q05 해설

정답 ②

직접 근거

- A 4행: 「나룻배의 불빛은 굽이 뒤에 숨었다.」
- A 10행: 「네가 건너올 길을 한 번 더 바라본다.」

연결 판단 배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상대가 늦은 원인은 같은 정보가 아니다. 상대가 무엇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는지는 남겨 두어야 한다.

Q05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함** — 강가라는 위치와 두 번 바라보는 대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②	× **적절하지 않음** — 나룻배의 불빛은 나오지만 상대가 배를 놓쳤는지와 늦은 원인은 제시되지 않았다. **← 정답**
③	○ **적절함** — 차가운 난간을 쥐는 행동이 있어 차가움을 손끝으로 느끼게 하는 촉각적 심상을 읽을 수 있다.
④	○ **적절함** — 상대가 올 길을 한 번 더 바라보는 마지막 행동에 근거가 있다.

연결 개념 추론의 범위·원인 덧붙임 / E04

작품 A 한눈 연결표 「강 건너 불빛」

근거(작품의 말)	개념	효과(무엇을 보여 주나)
3행 '건너온다는 네 말은 아직 물 위에 있고'	비유적 표현	약속은 있지만 상대가 아직 오지 않은 상황
5~6행 '찰박, 찰박', '물이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의성어·청각적 심상, 의인법, 반복	화자가 기다리는 강가의 장면을 생생하게 함
8행 '차가운 난간을 쥔다'	촉각적 심상	기다리는 자리의 차가운 감각을 손끝으로 느끼게 함
2행·10행 '바라본다'	행동의 반복	상대를 향한 시선, 곧 기다림이 끝까지 이어짐

하나로 이으면 아직 오지 않은 상대를 강가에서 기다리는 상황을 소리·촉감으로 생생하게 보여 주고, 반복되는 '바라본다'로 기다리는 마음이 끝까지 이어짐을 드러낸다.

Q06 해설

정답 ④

직접 근거

- B 1행: 「아침에는 바다를 탓했다.」
- B 8~9행: 「나는 내 이름을 쓰려던 손을 멈추고 / 발자국 옆에 물길 하나를 그었다.」
- B 12행: 「바다를 탓하던 말이 조금 낮아졌다.」

연결 판단 처음의 원망과 끝의 누그러짐 사이에는 자기 이름만 다시 쓰려던 행동을 멈추는 변화가 놓인다. 뒤의 태도를 앞과 반대로 과장해 바다를 무조건 찬양한다고 읽을 필요는 없다.

Q06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첫 행의 탓하는 태도와 어긋난다.
②	× **적절하지 않음** — 끝으로 갈수록 자기 이름을 쓰려던 손을 멈추고 물길을 낸다.
③	× **적절하지 않음** — 발자국을 지우지 않고 그 옆에 물길을 내며, 마지막에는 탓하던 말이 낮아진다.
④	○ **적절함** — 처음의 말과 중간 행동, 끝의 말의 변화를 함께 연결했다. ← 정답

연결 개념 태도 변화·행동·시상 전개 / E02·E04

Q07 해설

정답 ③

직접 근거

- B 6~8행: 「물이 물러난 자리에 / 작은 발자국들이 먼저 와 있었다. / 나는 내 이름을 쓰려던 손을 멈추고」

연결 판단 발자국을 '먼저 와 있던' 존재처럼 나타낸 의인법이다. 발자국이 먼저 도착한 듯 표현하여, 화자보다 앞서 이곳에 머물렀던 다른 존재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다만 그 존재의 정체까지 알려 주는 것은 아니다.

Q07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발자국 주인의 말이나 요구는 제시되지 않았다.
②	× **적절하지 않음** — 이름을 지운 것은 밤새 밀려온 물이며 발자국의 주인이 일부러 지운 일은 없다.
③	○ **적절함** — 발자국을 먼저 와 있던 존재처럼 나타낸 의인법의 효과를 설명했다. ← 정답
④	× **적절하지 않음** — 작다는 표현만 있을 뿐 주인을 알아낼 치수나 정체는 없다.

연결 개념 의인법·흔적과 존재 / E01

Q08 해설

정답 ①

직접 근거

- B 8~11행: 「나는 내 이름을 쓰려던 손을 멈추고 / 발자국 옆에 물길 하나를 그었다. / 들어온 물은 그 길을 따라 / 아직 남은 웅덩이와 만났다.」

연결 판단 태도가 언제나 설명 문장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하려다가 멈추고 무엇을 대신했는지, 그 뒤의 말이 어떠한지를 함께 보면 행동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Q08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함** — 손을 멈추고 물길을 내는 구체적 선택에 근거하여 태도를 읽었다. **← 정답**
②	× **적절하지 않음** — 자기 이름을 쓰려던 손을 멈추었다. 이름을 보존하려는 행동으로 읽으면 하려던 일과 대신 한 일을 혼동한다.
③	× **적절하지 않음** — 끝에서는 바다를 탓하던 말이 조금 낮아졌다고 한다.
④	× **적절하지 않음** — 다른 흔적을 본 뒤 손을 멈추는 순서와 마지막 말이 행동의 의미를 받친다.

연결 개념 행동으로 드러난 태도·태도 변화 / E02

Q09 해설

정답 ④

직접 근거

- B 7행: 「작은 발자국들이 먼저 와 있었다.」
- B 8~9행: 「나는 내 이름을 쓰려던 손을 멈추고 / 발자국 옆에 물길 하나를 그었다.」

연결 판단 다른 흔적에 주목했다고 해서 그 흔적을 남긴 사람이 등장한 것은 아니다. 혼자 한 행동을 공동 행동으로 바꾸어 읽지 않는다.

Q09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함** — 첫 세 행에 원망의 계기가 제시된다.
②	○ **적절함** — 8~9행에서 하려던 일과 실제로 한 일을 비교할 수 있다.
③	○ **적절함** — 3행 '내 이름'과, 그 이름을 다시 쓰려고 막대기를 들고 돌아온 4~5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 **적절하지 않음** — 발자국 주인의 정체를 알아보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행동하는 장면은 없다. **← 정답**

연결 개념 등장 대상·인물 덧붙임·근거의 범위 / E03·E04

Q10 해설

서술형

예시 답안

요소	답
① 앞부분(1~3행)의 물이 하는 일과 근거	1~3행에서 물은 화자가 새긴 이름을 지워 원망을 일으킨 대상으로 나타난다.
② 뒷부분(9~11행)의 물이 하는 일과 근거	9~11행에서는 화자가 낸 물길을 따라 웅덩이와 만나는 흐름으로 나타난다.
③ 두 모습의 대비와 화자의 태도(12행)	자기 이름을 지운 물이 뒤에서는 자신이 낸 길을 따라 웅덩이와 만난다. 화자가 물을 방해하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게 되면서, 12행의 원망이 조금 누그러졌음을 이해할 수 있다.

직접 근거

- B 1~3행: 「아침에는 바다를 탓했다. / 밤새 밀려온 물이 / 어제 새긴 내 이름을 가져갔다.」
- B 9~11행: 「발자국 옆에 물길 하나를 그었다. / 들어온 물은 그 길을 따라 / 아직 남은 웅덩이와 만났다.」
- B 12행: 「바다를 탓하던 말이 조금 낮아졌다.」

연결 판단 앞뒤에서 물은 같은 대상이지만 화자의 이름을 지운 모습과 물길을 따라 다른 물과 만나는 모습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물의 앞뒤 모습의 차이를 화자의 선택·말의 변화와 연결한다.

채점 기준 · 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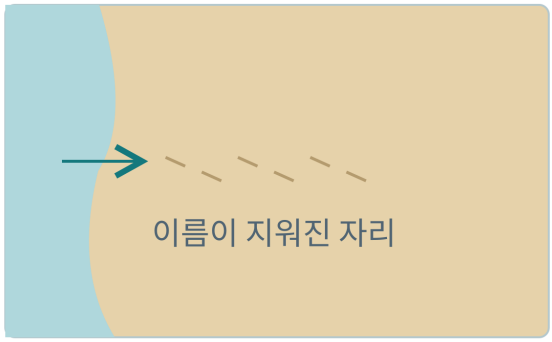
요소	인정 범위	배점
① 앞부분(1~3행)의 물이 하는 일과 근거	1~3행에서 이름을 지운 물과 그에 대한 원망을 근거에 맞게 제시	1
② 뒷부분(9~11행)의 물이 하는 일과 근거	9~11행에서 화자가 낸 물길을 따라 웅덩이와 만나는 물을 근거에 맞게 제시	1
③ 두 모습의 대비와 화자의 태도(12행)	이름을 지우는 모습과 길을 따라 만나는 모습을 대비함(1점). 이를 12행의 원망이 '조금' 누그러짐과 연결함(1점)	2

인정 범위·유의점 '내 흔적을 없앤 대상 / 내가 낸 길을 따라 흐르는 대상', '지워 버리는 모습 / 서로 이어지는 모습' 등을 근거에 맞게 쓰면 인정한다. 물길을 내고 원망이 누그러짐을 연결하면 '자연과 완전히 화해했다' 같은 정해진 결론을 쓰지 않아도 인정한다. 물이 실제로 마음을 바꾸거나 이름을 돌려주었다는 사건은 인정하지 않는다.

연결 개념 태도 변화·시상 전개·행동의 의미 / E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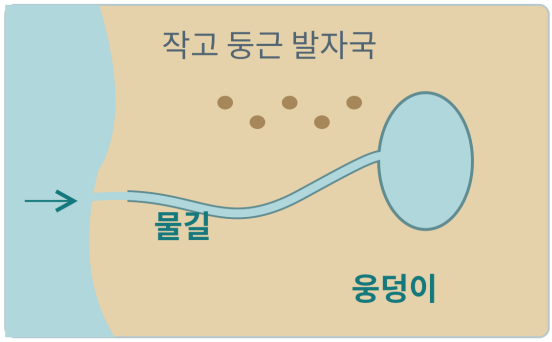
앞뒤의 물과 화자의 태도

앞 · 1~3행



이름을 지워 원망을 일으킨 물

뒤 · 9~11행



화자가 낸 길을 따라 웅덩이와 만나는 물

바다를 탓함 → 탓하던 말이 조금 낮아짐

작품 B 한눈 연결표 「젖은 모래」

근거(작품의 말)	개념	효과(무엇을 보여 주나)
1~3행 '바다를 탓했다', '내 이름을 가져갔다'	처음의 태도(원망)와 그 까닭	이름이 지워진 일로 바다를 원망함
7행 '작은 발자국들이 먼저 와 있었다'	의인법	화자보다 먼저 이곳에 머문 다른 존재에 주목하게 함
8~9행 손을 멈추고 발자국 옆에 물길을 그음	행동으로 드러난 태도	관심이 자기 이름에서 다른 존재의 흔적으로 옮겨 감
2~3행의 물 ↔ 10~11행의 물	소재의 대비	이름을 지우는 물 → 화자가 낸 길을 따라 웅덩이와 만나는 물
12행 '탓하던 말이 조금 낮아졌다'	태도 변화(시상의 마무리)	원망이 누그러짐('조금' —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

하나로 이으면 자기 이름을 지운 바다를 원망하던 화자가 다른 존재의 흔적에 눈을 돌리고 물이 흐를 길을 내 주면서, 원망이 조금 누그러진다.

Q11 해설

정답 ②

직접 근거

- C 초장: 「높은 산 큰 소나무 / 푸른빛을 자랑하나」
- C 중장: 「돌담 밑 작은 풀도 /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C 종장: 「어즈버 눈길 낮추니 / 이곳에도 봄이로다」

연결 판단 처음과 중간의 대상은 높이와 크기가 다르다. 종장의 눈길 낮춤은 낮은 곳에도 있는 봄을 발견하는 태도와 이어진다.

Q11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시선의 방향을 뒤집고 작은 풀의 꽃을 제외했다.
②	○ **적절함** — 대상의 위치·크기와 종장의 눈길 낮춤을 함께 연결했다. ← 정답
③	× **적절하지 않음** — 봄을 발견하는 종장을 떠나려는 행동으로 바꾸었다.
④	× **적절하지 않음** — 서로 다른 대상의 대비를 한 대상의 계절 변화로 바꾸었다.

연결 개념 대비·시선 이동·주제 / E02

Q12 해설

정답 ③

직접 근거

- C 초장: 「높은 산 큰 소나무 / 푸른빛을 자랑하나」
- C 중장: 「돌담 밑 작은 풀도 /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C 종장: 「어즈버 눈길 낮추니 / 이곳에도 봄이로다」

장	1음보	2음보	3음보	4음보
초장	높은 산(3)	큰 소나무(4)	푸른빛을(4)	자랑하나(4)
중장	돌담 밑(3)	작은 풀도(4)	봄이 오면(4)	꽃이 핀다(4)
종장	**어즈버(3)**	눈길 낮추니(5)	이곳에도(4)	봄이로다(4)

시조는 초장·중장·종장의 3장, 각 장 2구씩 6구, 각 장 4음보로 이루어집니다. 종장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고, 이 자리에 '어즈버' 같은 감탄사를 두어 시상을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괄호 안 숫자는 음절 수이며, 2음보씩 묶어 한 구가 됩니다.

연결 판단 대상을 차례로 보여 주는 흐름과 종장의 감탄을 함께 본다. 형식의 각 부분을 나누어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한다.

Q12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세 장은 큰 나무에서 작은 풀, 그 발견에 대한 감탄으로 나아간다. 제시 순서를 뒤집었다.
②	× **적절하지 않음** — 종장은 이곳에도 봄이 있다는 발견의 감탄이다. 두 대상의 우열을 가리는 결론이 아니다.
③	○ **적절함** — 초장·중장의 대조되는 대상 제시와 종장의 감탄이라는 각 장의 기능을 연결했다. ← 정답
④	× **적절하지 않음** — 중장부터 작은 풀에도 꽃이 핀다고 하며 종장도 발견의 감탄으로 이어진다.

연결 개념 시조의 장별 내용·전개·마무리 / E02

Q13 해설

정답 ①

직접 근거

- C 초장: 「높은 산 큰 소나무 / 푸른빛을 자랑하나」
- C 중장: 「돌담 밑 작은 풀도 /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C 종장: 「어즈버 눈길 낮추니 / 이곳에도 봄이로다」

연결 판단 대조(대비)는 서로 다른 특성을 나란히 놓아 차이를 뚜렷하게 하는 표현 방법이다. 여기서는 크기와 위치를 대조하여, 큰 대상에 가 있던 시선이 작은 풀의 봄도 알아보도록 넓어진다. 한쪽을 무조건 부정하는 뜻은 아니다.

Q13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함** — 대비가 작은 존재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설명했다. ← 정답
②	× **적절하지 않음** — 작은 풀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큰 소나무의 가치를 지우는 뜻은 아니다.
③	× **적절하지 않음** — 나무가 꽃을 가린 사건은 없고 작은 풀에도 꽃이 핀다고 한다.
④	× **적절하지 않음** — 높은 산과 돌담 밑의 위치 차이, 눈길 낮춤과 어긋난다.

연결 개념 대비·효과·해석 범위 / E01·E04

Q14 해설

정답 ④

직접 근거

- C 종장: 「어즈버 눈길 낮추니 / 이곳에도 봄이로다」

연결 판단 감탄사 ‘어즈버’와 감탄형 어미 ‘-로다’가 ‘이곳에도 봄’이라는 발견에 대한 반가움과 감탄을 드러낸다. 감탄 표현이라는 이름만 보고 슬픔·분노 같은 정서를 임의로 붙이지 않는다.

Q14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종장에는 상대에게 내리는 명령이나 돌아가겠다는 말이 없다.
②	× **적절하지 않음** — 이곳에도 봄이 있음을 감탄하며 밝히는 말이다.
③	× **적절하지 않음** — 눈길을 낮추어 봄을 발견하는 반응을 관찰 중단으로 뒤집었다.
④	○ **적절함** — 감탄 표현을 바로 앞의 발견 내용에 연결했다. ← 정답

연결 개념 감탄사·감탄형 어미·정서·발견 / E01

Q15 해설

정답 ①

직접 근거

- C 중장: 「돌담 밑 작은 풀도 /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C 종장: 「어즈버 눈길 낮추니 / 이곳에도 봄이로다」

연결 판단 보조사 '도'는 더함·포함을, 보조사 '만'은 한정을 나타낸다. '너도 와'는 다른 사람에 더해 너까지, '너만 와'는 다른 사람은 빼고 너 하나를 가리킨다. '이곳에도'의 포함을 '이곳에만'의 한정으로 바꾸면 작품의 뜻이 달라진다. 작은 존재를 발견한 일을 큰 존재의 부정으로 읽지 않는다.

Q15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다른 곳에 더하여 이곳에도 있음을 나타내는 말을 이곳에만 있다는 배제로 바꾸었다. ← 정답
②	○ **적절함** — 작은 풀을 포함하는 표현과 꽃이 피는 내용에 근거가 있다.
③	○ **적절함** — 종장의 행동과 발견 내용을 연결했다.
④	○ **적절함** — 소나무를 제시한 뒤 작은 풀의 봄도 확인하는 전개로 뒷받침된다.

연결 개념 보조사 '도'·'만'·대조(대비)·주제의 범위 / E03·E04

작품 C 한눈 연결표 「돌담 곁」

근거(작품의 말)	개념	효과(무엇을 보여 주나)
초장 '큰 소나무 / 푸른빛을 자랑하나'	대조('-나': 앞뒤를 맞세우는 말)	높고 큰 대상을 먼저 보여 줌
중장 '돌담 밑 작은 풀도'	대조, 보조사 '도'(포함)	작은 존재도 꽃을 피운다는 발견
종장 '눈길 낮추니'	시선의 이동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눈길이 옮겨 감
종장 '어즈버', '봄이로다'	감탄사·감탄형 어미, 종장에서 시상을 모음	낮은 곳의 봄을 발견한 반가움과 감탄

하나로 이으면 큰 소나무와 작은 풀을 대조하고 눈길을 낮추어, 작은 존재에게도 찾아온 봄을 발견한 감탄으로 마무리한다.

Q16 해설

정답 ③

직접 근거

- D 〔가〕: 「나는 벽시계를 보았다. 점심시간 안에 파일을 보내야 했다.」
- D 〔나〕: 「내 입으로 읽으면 금방 끝날 것 같았다.」

연결 판단 시간을 확인하는 행동과 대신 읽겠다는 말은 빨리 끝내려는 기준을 드러낸다. 끝에서 지후의 목소리를 남기는 선택과 비교할 처음의 근거이다.

Q16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끝에서 나타나는 기다림을 처음부터 있던 태도로 옮겼다.
②	× **적절하지 않음** — 방송의 인기를 계산하거나 청중 반응을 묻는 장면은 없다.
③	○ **적절함** — 벽시계·남은 시간·대신 읽겠다는 말을 같은 기준으로 묶었다. **← 정답**
④	× **적절하지 않음** — 점심시간은 제출 기한이며 식사를 위해 녹음을 포기하는 선택은 없다.

연결 개념 인물의 판단·행동·말 / E01

Q17 해설

정답 ②

직접 근거

- D 〔나〕: 「"내가 읽을까?" 지후는 대본으로 눈을 내렸다. "조금만 더 해 볼게."」

연결 판단 큰 다툼이 없어도 인물 사이의 생각이나 선택이 맞서는 것은 갈등이다. '나'는 대신 읽어 빨리 끝내려 하고 지후는 스스로 더 해 보려 하므로, 같은 과제를 마치는 방식에서 생각의 차이가 드러난다.

Q17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더 해 보려는 사람은 지후이고, 대신 읽어 빨리 끝내려는 사람은 나이다. 주체를 뒤바꾸었다.
②	○ **적절함** — 같은 과제에서 대신하기와 계속 시도하기라는 선택이 맞선다. **← 정답**
③	× **적절하지 않음** — 지후는 더 해 보겠다고 하며 나도 대신 읽을까 묻는다.
④	× **적절하지 않음** — 낭독하는 인물과 고치려는 인물의 역할을 뒤바꾸었다.

연결 개념 인물 사이의 갈등·대화 / E03

Q18 해설

정답 ④

직접 근거

- D 〔다〕 : 「같은 곳에서 막힌 뒤에도 대본을 접지 않았다.」
- D 〔라〕 : 「이번에는 말이 잠깐 끊겨도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연결 판단 장소가 바뀐 사실 자체보다 그곳에서 알게 된 지후의 시도를 보아야 한다. 그 경험이 다음 장면의 도움과 기다림을 이해하게 한다.

Q18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지후는 대본을 접지 않고 계속 읽으며 끝 파일도 그의 목소리이다.
②	× **적절하지 않음** — 기한이 지났다는 정보는 없다.
③	× **적절하지 않음** — 지후는 같은 첫 문장을 연습한다. 대본 교체 사건은 없다.
④	○ **적절함** — 복도에서 알게 된 정보와 돌아온 뒤 바꾼 행동을 연결했다. **← 정답**

연결 개념 공간의 역할·계기·인물 변화 / E02

Q19 해설

정답 ②

직접 근거

- D 〔나〕 : 「"내가 읽을까?"」
- D 〔라〕 : 「"한 문장씩 이어 볼까?"」
- D 〔라〕 : 「저장된 파일에서는 지후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나왔다.」

연결 판단 같은 의문형 문장이라도 제안하는 행동은 다르다. 대본에 빗금을 긋고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는 행동이 두 번째 제안의 뜻을 받친다.

Q19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말끝의 형식이 같다고 제안의 내용과 역할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②	○ **적절함** — 각 제안이 누구의 낭독을 이어 가게 하는지 비교했다. ← 정답
③	× **적절하지 않음** — 두 말의 발화자는 모두 나이다.
④	× **적절하지 않음** — 뒤의 제안은 낭독을 이어 가기 위한 방법이며 제출 포기가 아니다.

연결 개념 대사의 의미·대비·태도 변화 / E02·E03

Q20 해설

정답 ③

직접 근거

- D 〔나〕: 「지후는 대본으로 눈을 내렸다. "조금만 더 해 볼게."」
- D 〔다〕: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복도 끝에서 지후의 목소리를 들었다.」

연결 판단 사건을 겪는 주인공 '나'가 들려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 시점의 서술자 '나'는 자기 생각은 직접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인물의 속마음은 그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짐작하여 전한다. 지후의 말·행동에서 뜻을 읽는 일과 눈을 내린 순간의 생각을 직접 서술하는 일은 다르다. 소설의 '나'는 작가가 만든 서술자이다.

Q20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함** — 내가 읽으면 금방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제시된다.
②	○ **적절함** — 복도에서 지후의 소리를 듣고 행동을 본 경험이 제시된다.
③	× **적절하지 않음** — 말과 행동만 제시되며 그 순간 지후의 생각이 직접 서술되지는 않는다. ← 정답
④	○ **적절함** — 지후의 말이 시도하려는 뜻을 밝힌다. 근거 없는 속마음 확정과 다르다.

연결 개념 1인칭 주인공 시점·직접 아는 정보와 추론 / E04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의 머리에 단 카메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속말도 함께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은 직접 들려주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속은 보이지 않아 말과 표정·행동으로 짐작합니다.

작품 D 한눈 연결표 「녹음 버튼」

근거(작품의 말)	개념	효과(무엇을 보여 주나)
〔가〕〔나〕 벽시계를 봄, '내가 읽을까?'	인물의 처음 기준	빨리 끝내는 일을 앞세움
〔나〕 '조금만 더 해 볼게.'	인물 사이의 갈등(생각 차이)	대신 읽어 끝내기 ↔ 스스로 계속 해 보기
〔다〕 복도에서 지후의 연습을 보고 들음	계기(공간의 이동)	지후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됨
〔라〕 빗금 그은 대본, '한 문장씩 이어 볼까?', 버튼을 누르지 않음	대사·행동으로 드러난 변화	지후가 끝까지 읽도록 돕고 기다림
작품 전체	1인칭 주인공 시점	'나'의 생각은 직접, 지후의 마음은 말·행동으로만 전해짐

하나로 이으면 빨리 끝내려던 '나'가 복도에서 지후의 연습을 본 뒤, 지후가 스스로 끝까지 읽도록 돕는 쪽으로 달라진다.

Q21 해설

정답 ①

직접 근거

- E 〔가〕: 「늦가을 오후, 우진은 운동장을 나서려다 철망 바깥에 선 아이를 보았다.」
- E 〔나〕: 「지난봄 전학 왔을 때, 우진도 그 철망 밖에 오래 서 있었다.」
- E 〔라〕: 「지금 우진은 작은 문의 손잡이를 잡았다.」

연결 판단 일이 일어난 순서와 들려주는 순서를 구별한다. 실제 시간 흐름대로 들려주면 순행적 구성이다. 이 작품은 현재를 먼저 보여 준 뒤 관련된 과거 경험을 들려주고 현재로 돌아오므로 역순행적 구성이다.

Q21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함** — 현재·과거·현재의 제시 순서를 시간 표지와 연결했다. **← 정답**
②	× **적절하지 않음** — 이 선택지는 순행적 구성의 설명이다. 작품은 늦가을을 먼저 제시한 뒤 지난봄으로 돌아간다.
③	× **적절하지 않음** — 지난봄 경험의 중심 인물은 우진이며 끝은 지금 문 앞의 행동이다.
④	× **적절하지 않음** — 지난봄과 그 다음 날의 경험이 중간에 있다.

연결 개념 시간 순서·역순행적 구성·회상 / E02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서 지금 장면을 보여 주다가 과거 장면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회상 장면'과 같은 구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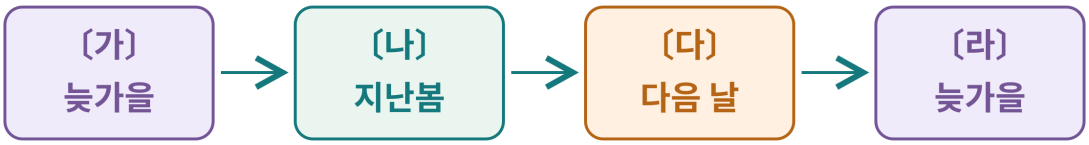
일어난 순서와 들려주는 순서

■ 지난봄 ■ 다음 날 ■ 늦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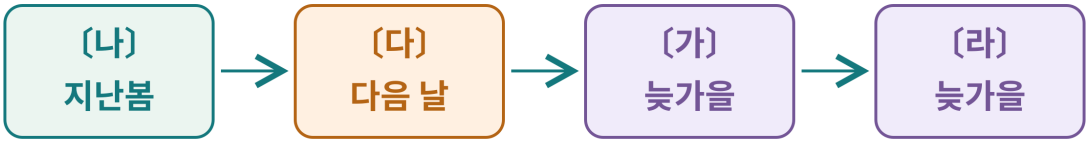
일어난 순서



들려주는 순서 · 역순행적 구성(현재 → 과거 → 현재)



Q24처럼 바꾸면 · 순행적 구성



사건은 그대로 두고, 지난봄의 경험부터 시간 흐름대로 들려줌

Q22 해설

정답 ④

직접 근거

- E 〔나〕 : 「우진은 저 안은 이미 서로 아는 아이들의 자리라고 생각했다.」
- E 〔다〕 : 「우진은 그날 처음 안으로 들어가 함께 공을 찼다.」
- E 〔라〕 : 「"이쪽 문이 잘 안 열려. 같이 밀어 볼래?"」

연결 판단 닫힌 문을 처음에는 관계의 벽처럼 받아들였다. 함께 열고 들어간 경험이 있었기에 현재에는 바깥 아이에게 함께 열자는 말을 건넨다. 문이 완전히 고쳐졌다는 설명은 아니다.

Q22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처음에는 아는 아이들만의 자리로 생각하고 돌아섰다.
②	× **적절하지 않음** — 현재에도 쇠고리가 걸린다. 물건의 교체보다 판단과 행동이 달라졌다.
③	× **적절하지 않음** — 끝에서 함께 밀어 보자며 바깥 아이가 다가오게 한다.
④	○ **적절함** — 처음 해석, 문을 연 경험, 현재의 말을 연결했다. **← 정답**

연결 개념 판단 변화·소재의 의미·행동 / E02

Q23 해설

정답 ③

직접 근거

- E 〔다〕: 「"이 문, 쇠고리가 자꾸 걸려. 같이 밀어 줄래?" 우진이 바깥에서 밀자 그 아이도 안쪽에서 손잡이를 당겼다. 문이 열렸다.」
- E 〔라〕: 「여전히 쇠고리가 걸렸다.」

연결 판단 쇠고리는 여전히 걸리지만 함께 밀고 당기면 문이 열린다. 문이 고쳐졌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열었기 때문에 관계가 달라진다. 작은 문은 서로 손을 내밀 때 가까워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소재로 읽을 수 있다.

Q23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다〕에서 문이 열렸고, 〔라〕에서 우진이 다른 아이를 부른다.
②	× **적절하지 않음** — 철망은 그대로 있고 작은 문으로 드나든다.
③	○ **적절함** — 함께 여는 문의 모습과 달라지는 관계를 연결했다. **← 정답**
④	× **적절하지 않음** — 쇠고리는 사건을 이끄는 소재이며, 시설 수리를 주장하는 글이 아니다.

연결 개념 소재의 상징·공간적 배경 / E01·E02

Q24 해설

정답 ②

직접 근거

- E 〔다〕: 「"이 문, 쇠고리가 자꾸 걸려. 같이 밀어 줄래?"」
- E 〔가〕: 「우진은 가방끈을 고쳐 메다가 문 쪽으로 걸음을 돌렸다.」

연결 판단 바뀐 순서는 지난봄과 그 다음 날을 먼저 놓고 늦가을 현재를 보여 준다. 사건은 그대로이지만 독자가 배경을 알게 되는 순서가 달라진다. 바꾼 순서는 실제 시간 흐름을 따르는 순행적 구성이다. Q21 해설 뒤의 '일어난 순서와 들려주는 순서' 도해를 참조한다.

Q24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현재를 먼저 놓은 원래 구성에 더 잘 맞는 효과이다.
②	○ **적절함** — 과거를 먼저 놓으면 독자가 현재 행동의 배경을 알게 되는 순서가 달라진다. ← 정답
③	× **적절하지 않음** — 순서를 바꾸어도 두 아이의 동일성을 밝히는 정보는 생기지 않는다.
④	× **적절하지 않음** — 〔다〕를 먼저 놓으므로 쇠고리 문제를 더 일찍 알게 된다.

연결 개념 구성의 변용·정보 제시 순서·효과 / E02·E04

Q25 해설

서술형

예시 답안

요소	답
① 판정 — 그 생각은 누구의 무엇인가	그렇게 확정할 수 없다. 이미 아는 아이들만의 자리라는 것은 문밖에 선 우진이 혼자 내린 판단이다.
② 〔나〕의 행동과 〔다〕의 사건으로 본 근거	〔나〕에서 우진은 공을 돌려주고 돌아섰을 뿐 안쪽 아이들에게 거절당한 장면은 없다. 〔다〕에서는 한 아이가 먼저 불러 함께 문을 열고 공을 찬다. 우진이 느낀 거리감을 실제 거절의 사실로 바꾸어 읽을 수 없다.

직접 근거

- E 〔나〕: 「우진은 저 안은 이미 서로 아는 아이들의 자리라고 생각했다.」
- E 〔나〕: 「공이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도 발끝으로 밀어 돌려주고는 돌아섰다.」
- E 〔다〕: 「다음 날 한 아이가 철망 너머에서 우진을 불렀다.」
- E 〔다〕: 「우진은 그날 처음 안으로 들어가 함께 공을 찼다.」

연결 판단 인물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서술과 그 생각의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은 다르다. 당시의 돌아섬과 뒤의 초대를 구별하면 우진의 느낌을 다른 아이들의 거절로 확정할 수 없다.

채점 기준 · 4점

요소	인정 범위	배점
① 판정 — 그 생각은 누구의 무엇인가	실제 거절이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판정함(1점). 우진이 혼자 내린 판단·느낌임을 구별함(1점)	2
② 〔나〕의 행동과 〔다〕의 사건으로 본 근거	〔나〕에서 공을 돌려주고 돌아섰을 뿐 거절당한 장면은 없음을 설명함(1점). 〔다〕의 부름·함께 문 열기·공 차기를 확정된 배제 관계로 보기 어려운 단서로 연결함(1점)	2

인정 범위·유의점 '우진의 느낌을 안쪽 아이들의 뜻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닫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절을 알 수 없다' 등을 인정한다. 다음 날 함께 놀았다는 사실로 전날의 모든 마음까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절한 적이 전혀 없다’, ‘안쪽 아이들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친절하다’는 확대 해석이나 문이 완전히 고쳐졌다는 내용은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연결 개념 판단 변화·회상·공간·행동 / E04

인물의 생각과 실제 사건을 나누기

우진의 생각 · 〔나〕
‘저 안은 이미 서로 아는 아이들의 자리’라고 혼자 판단함

당시 행동 · 〔나〕
공을 돌려주고 돌아섬. 거절당하는 장면은 없음.

다음 날 사건 · 〔다〕
한 아이가 먼저 부름. 함께 문을 열고 공을 찼음.

↓

실제로 거절당했다고 확정할 수 없음
다음 날 초대가 전날의 모든 마음까지 증명하지는 않음

작품 E 한눈 연결표 「철망의 작은 문」

근거(작품의 말)	개념	효과(무엇을 보여 주나)
〔가〕 늦가을 → 〔나〕 지난봄 → 〔다〕 다음 날 → 〔라〕 지금	역순행적 구성 (회상)	현재 행동의 까닭을 과거 경험으로 알려 줌
〔나〕 ‘이미 서로 아는 아이들의 자리라고 생각했다’	인물의 판단 (사실과 구별)	우진이 혼자 만든 거리감
〔다〕 안팎에서 함께 밀고 당겨 문이 열림	계기	처음으로 안에 들어가 어울림
〔라〕 ‘같이 밀어 볼래?’	받은 행동을 되돌려 줌	자신이 받은 초대를 다른 아이에게 건넴
철망 안팎, 쇠고리가 걸리는 작은 문	공간적 배경·소재의 상징	함께 문을 여는 행동으로 가까워지는 관계

하나로 이으면 닫힌 문 앞에서 혼자 거리를 두던 우진이 함께 문을 연 경험을 한 뒤, 이제는 자신이 다른 아이에게 같은 손을 내민다.

Q26 해설

정답 ④

직접 근거

- F 〔가〕 : 「옛날 어느 고을에 큰비가 내려 둑이 무너졌다.」
- F 〔다〕 : 「입김이 닿자 접시가 아래로 내려갔다.」
- F 〔라〕 : 「“고장 난 물건으로 사람을 가리지 마시오.”」

연결 판단 둑의 붕괴 때문에 약속을 겨루는 자리가 마련된다. 저울이 보인 두 결과와 그에 대한 원의 반응을 구별해야 판정의 문제가 드러난다.

Q26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곡식을 내놓거나 둑이 복구된 장면은 없다.
②	× **적절하지 않음** — 수리·재측정·상 수여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 **적절하지 않음** — 저울은 부자의 약속에 기울지 않았다. 원은 저울 결과를 따른 것이 아니라 고장이라고 돌려주었다.
④	○ **적절함** — 둑의 문제, 약속의 차이, 원의 판정을 순서대로 연결했다. **← 정답**

연결 개념 사건 전개·원인과 반응·인물 / E03

Q27 해설

정답 ①

직접 근거

- F 〔가〕 : 「원은 사람들을 불러 놓고 고을을 위해 가장 무거운 약속을 하는 이에게 상을 주겠다고 했다.」
- F 〔라〕 : 「그러고는 부자를 자기 곁에 앉혀 놓고 ‘원님의 지혜’라는 말을 한 번 더 해 보라 했다.」

연결 판단 처음의 공적인 말과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을 가까이하는 행동이 어긋난다. 그 불일치를 통해 원의 판단 태도를 비판하게 한다.

Q27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함** — 공적인 약속을 가린다던 말과 아첨하는 부자를 곁에 두는 행동을 대비했다. **← 정답**
②	× **적절하지 않음** — 원의 재촉은 곡식 이행이 아니라 자기 지혜를 칭찬하는 말을 다시 하는 쪽으로 향한다.
③	× **적절하지 않음** — 칭찬을 경계하지 않고 다시 듣고 싶어 하며 젊은이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 **적절하지 않음** — 부자를 자기 곁에 앉히고 더 가까이 당긴다. 두 사람에게 동등하게 상을 나눈 장면은 없다.

연결 개념 풍자·말과 행동의 불일치·주제 / E02·E03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풍자는 단점을 크게 과장해 그린 캐리커처처럼, 웃음이 나게 보여 주면서 잘못을 꼬집는 방법입니다.

Q28 해설

정답 ②

직접 근거

- F 〔가〕: 「지킬 뜻이 담긴 말은 무게가 생길 것이오.」
- F 〔나〕: 「그가 접시에 입김을 불었지만 저울은 기울지 않았다.」
- F 〔다〕: 「입김이 닿자 접시가 아래로 내려갔다.」

연결 판단 약속에 무게가 생기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비현실적(전기적) 요소이다. 지킬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저울의 움직임으로 그 차이를 드러내어 겉으로 큰 약속과 지킬 뜻을 비교하게 한다.

Q28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많은 곡식을 약속한 부자의 접시는 기울지 않는다.
②	○ **적절함** — 노파가 밝힌 원리와 두 약속의 결과를 연결했다. ← 정답
③	× **적절하지 않음** — 설정은 지킬 뜻과 연결되어 있으며 입김의 세기를 겨루지 않는다.
④	× **적절하지 않음** — 접시 움직임이 다르고 부자의 속마음도 제시된다.

연결 개념 비현실적(전기적) 요소·구체화·사건의 의미 / E01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체온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을 숫자로 보여 주듯, 이 저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킬 뜻'을 무게로 보여 줍니다.

Q29 해설

정답 ③

직접 근거

- F 〔나〕: 「부자는 원의 칭찬만 얻으면 될 뿐, 곳간 문을 열 생각은 없었다.」
- F 〔나〕: 「그가 접시에 입김을 불었지만 저울은 기울지 않았다.」

연결 판단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속마음까지 알려 주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다. 속마음을 직접 아는 서술과 인물이 겉으로 들은 말을 구별한다. 독자는 공언과 속뜻의 차이를 알고 저울 결과를 읽지만 원이 그 마음까지 알고 있었다고 확정할 근거는 없다.

Q29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곳간 문을 열 생각은 없었다고 밝힌다.
②	× **적절하지 않음** — 칭찬만 얻으려는 속뜻을 밝힐 뿐 반성하거나 저울을 다시 재는 장면은 없다.
③	○ **적절함** — 직접 밝힌 속마음이 뒤의 결과와 인물 평가를 읽는 단서가 된다. **← 정답**
④	× **적절하지 않음** — 독자에게 알려 준 정보가 인물 모두에게 똑같이 알려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연결 개념 전지적 작가 시점·속마음·사건 해석 / E04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는 모든 인물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눈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원에게 직접 밝히지 않은 부자의 속셈을 독자는 먼저 압니다.

비교할 것	작품 D 「녹음 버튼」	작품 F 「말을 재는 저울」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이야기하는 이	사건을 겪는 '나'	작품 밖의 서술자
다른 인물의 속마음	말·행동으로 짐작(지후)	직접 알려 줌(부자)

Q30 해설

정답 ①

직접 근거

- F 〔라〕: 「젊은이는 상을 기다리지 않고 둑 쪽으로 걸어갔다.」
- F 〔마〕: 「"저울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구려."」
- F 〔마〕: 「원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부자의 자리를 더 가까이 당겨 주었다.」

연결 판단 노파의 말을 물건의 수리로만 좁혀 읽으면 원의 잘못된 판단과 연결되지 않는다. 전체의 인물 행동을 근거로 말의 뜻을 읽는다.

Q30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앞뒤의 원의 판단과 부자를 가까이하는 행동에 비추면 먼저 돌아볼 판단 태도를 가리킨다. 접시 수리 방법은 없다. **← 정답**
②	○ **적절함** — 둑으로 가는 행동을 앞의 약속과 연결할 수 있다. 실제 복구 완료를 확정하는 말은 아니다.
③	○ **적절함** — 칭찬을 반긴 뒤 부자를 더 가까이하는 행동이 이어진다.
④	○ **적절함** — 고장 주장 뒤에 먼저 살필 것이 있다는 말이 놓인다.

연결 개념 함축된 말·풍자·전체 문맥 / E03·E04

작품 F 한눈 연결표 「말을 재는 저울」

근거(작품의 말)	개념	효과(무엇을 보여 주나)
〔가〕 지킬 뜻이 담긴 말에 무게가 생기는 저울	비현실적(전기적) 요소	보이지 않는 '지킬 뜻'을 눈에 보이게 함
〔나〕 '곳간 문을 열 생각은 없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인물의 속마음 서술)	부자의 말과 속뜻이 다름을 독자가 먼저 앎
〔나〕 기울지 않는 저울 ↔ 〔다〕 내려가는 접시	인물의 대비	겉으로 큰 약속 ↔ 지킬 뜻이 담긴 약속
〔라〕〔마〕 저울 탓, 부자를 곁에 앉힘	풍자	아첨을 반기는 관리를 비판함
〔마〕 '저울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구려.'	함축적인 말	판단하는 사람의 태도를 돌아보게 함

하나로 이으면 약속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는 비현실적 장치로 말과 뜻의 차이를 드러내고, 그 결과를 외면하는 원의 모습을 풍자한다.

Q31 해설

정답 ②

직접 근거

- G 〔나〕 지시문: 「태오가 수레를 계단 앞까지 밀었다가 멈춘다. 앞바퀴가 첫 계단에 닿는다.」

연결 판단 이 지문처럼 대사와 지시문으로 진행되는 극에는 소설처럼 사건을 들려주는 서술자가 없다. 인물의 마음과 상황은 대사와 행동으로 드러난다. 극의 구성 요소는 해설(인물·시간·장소 등의 안내), 지시문(동작·표정·말투 등의 지시), 대사(인물의 말)이다. 여기서는 행동 지시문이 수레가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관객 눈앞에 보여 준다.

Q31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태오는 이동 중 멈추었고 상자를 내려 전시한 장면은 없다.
②	○ **적절함** — 바퀴와 계단이 맞닿는 동작이 뒤의 대사와 안내판 변경을 이해하게 한다. ← 정답
③	× **적절하지 않음** — 이 지문에는 인물의 속마음을 풀이하는 서술자가 없다. 이 행동 지시문은 눈에 보이는 태오의 동작을 나타낸다.
④	× **적절하지 않음** — 첫 계단에 바퀴가 닿아 멈춘 상태이며 올라간 결과가 아니다.

연결 개념 극의 해설·행동 지시문·대사·상황 / E01

Q32 해설

정답 ③

직접 근거

- G 〔가〕 유나: 「그런데 화살표가 여러 개면 복잡하잖아. 가까운 길만 남겼어.」
- G 〔나〕 태오: 「수레를 밀고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해?」

연결 판단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문제가 아니다. 가까움과 간단함을 우선한 안내가 다른 이용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인물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Q32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가까운 계단 하나만 안내한 사람이 유나이고 수레가 갈 길을 요구하는 사람이 태오이다. 기준을 뒤바꾸었다.
②	× **적절하지 않음** — 유나도 오른쪽 통로가 이어짐을 안다. 막힘의 정보 차이가 아니라 안내 기준의 차이이다.
③	○ **적절함** — 같은 안내판을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를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했다. **← 정답**
④	× **적절하지 않음** — 태오는 갈 수 있는 길을 묻는다. 모든 화살표를 없애자는 말은 없다.

연결 개념 인물의 기준·갈등·대사 / E03

Q33 해설

정답 ①

직접 근거

- G 〔가〕 지시문: 「유나가 계단 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하나를 안내판에 붙인다.」
- G 〔다〕 지시문: 「'계단'과 '완만한 통로'라고 쓴 두 화살표를 각각의 방향에 맞게 붙인다.」
- G 〔다〕 지시문: 「태오가 오른쪽 통로로 수레를 민다.」

연결 판단 극에서는 소품의 변화가 사건의 변화를 눈에 보이게 한다. 〔나〕에서 문제가 된 화살표가 〔다〕에서 바뀌고 태오가 그 안내를 따라 지나가므로 갈등이 풀렸음을 알 수 있다.

Q33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함** — 갈등의 원인이던 소품의 변화로 갈등의 해소를 보여 준다. **← 정답**
②	× **적절하지 않음** — 두 화살표는 실제 두 길을 알리며 장식 때문에 붙인 것이 아니다.
③	× **적절하지 않음** — 완만한 통로 화살표도 붙였고 태오는 그 통로로 간다.
④	× **적절하지 않음** — 두 길은 같은 전시장으로 이어진다(첫머리 해설·〔가〕 대사).

연결 개념 소품·갈등의 발생과 해소 / E02·E03

Q34 해설

정답 ④

직접 근거

- G 〔나〕 태오: 「참 친절하네. 갈 수 없는 길만 알려 주고.」
- G 〔나〕 지시문: 「태오는 웃지 않고 수레의 바퀴와 계단을 번갈아 가리킨다.」

연결 판단 반어는 겉으로 한 말과 속뜻이 반대인 표현이다. 친절하다는 말만 떼면 칭찬처럼 보인다. 멈춘 수레, 갈 수 없는 길이라는 말, 웃지 않고 가리키는 행동을 함께 보면 반어를 통한 비판임을 알 수 있다.

Q34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수레가 계단 앞에서 멈춘 뒤 하는 말이며 갈 수 없는 길이라는 불만이 이어진다.
②	× **적절하지 않음** — 안내의 문제를 태오의 입장에서 꼬집는다. 유나의 생각을 대신 설명하는 말이 아니다.
③	× **적절하지 않음** — 친절하다는 겉말의 대상은 유나의 안내이다. 자기 선택을 자책하는 말로 주체를 바꾸었다.
④	○ **적절함** — 긍정적인 겉말과 바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상황이 반대 뜻을 드러낸다. ← 정답

연결 개념 반어·대사·지시문의 문맥 / E01·E03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비가 쏟아지는 날 '날씨 한번 좋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반어입니다. 겉말은 칭찬이어도 속뜻은 반대입니다.

Q35 해설

서술형

예시 답안

요소	답
동작 1과 드러나는 뜻	계단과 완만한 통로를 가리키는 두 화살표를 각각 붙여 수레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길도 알린다.
동작 2와 드러나는 뜻	안내판 옆을 비켜 통로를 열어 주어 태오가 수레를 밀고 지나가게 한다.
두 동작으로 보여 주는 태도	가까운 길 하나만 남기던 데서 상대가 실제로 이용할 조건을 고려하고 돕는 쪽으로 달라진다. 생각을 대사로 직접 말하지 않아도 이런 동작에서 그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직접 근거

- G 〔다〕 지시문: 「‘계단’과 ‘완만한 통로’라고 쓴 두 화살표를 각각의 방향에 맞게 붙인다.」
- G 〔다〕 지시문: 「유나는 안내판 옆을 비켜 통로를 열어 준다.」

연결 판단 관객은 실제 두 길을 표시하는 동작과 수레가 지나갈 자리를 내주는 동작을 볼 수 있다. 대사를 빼도 두 동작을 앞의 안내 기준과 이어 유나가 상대의 이용 상황을 살핀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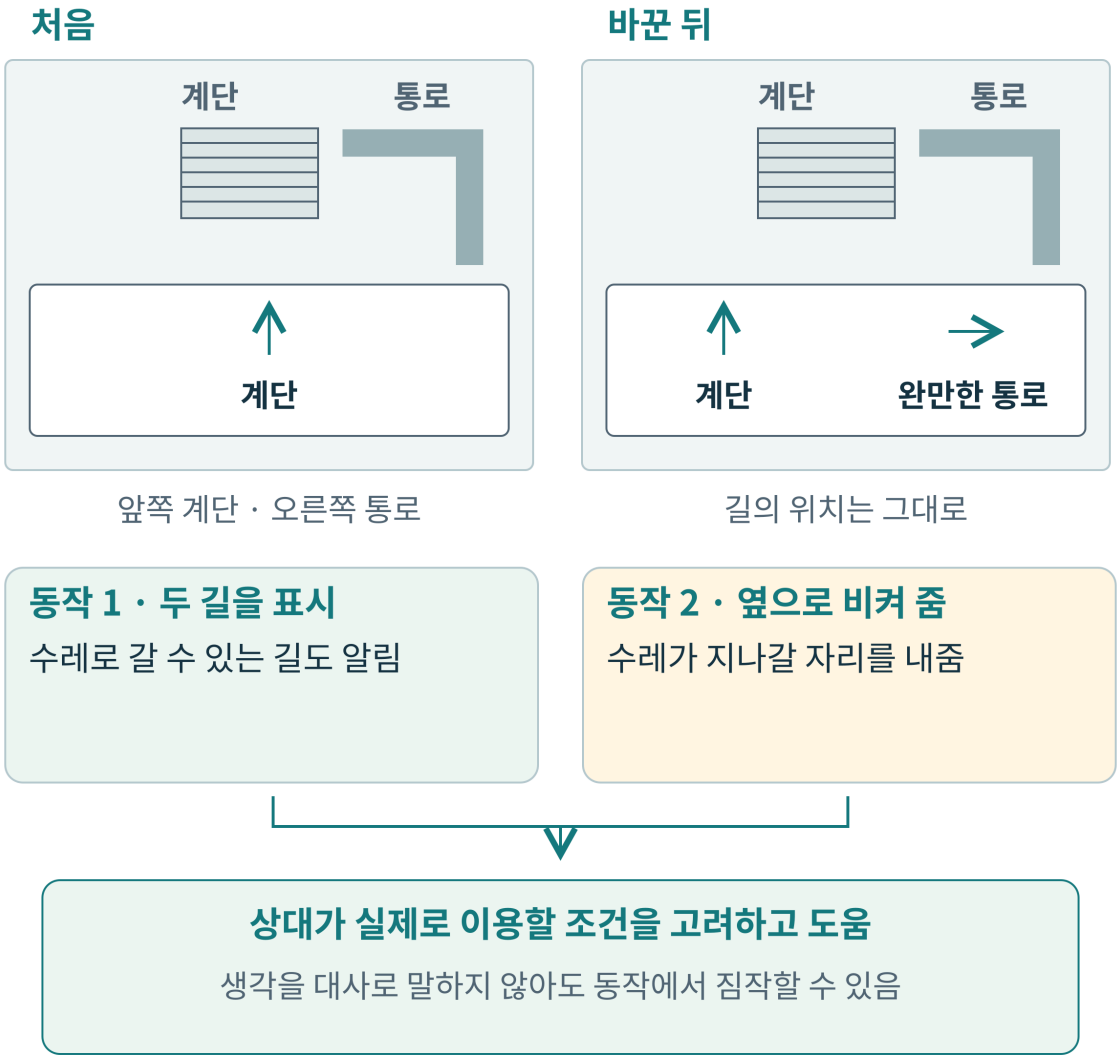
채점 기준 · 4점

요소	인정 범위	배점
동작 1과 드러나는 뜻	옛 화살표 떼기·두 길의 화살표 붙이기·옆으로 비켜 통로 열기 중 한 동작을 제시하고 그 뜻을 설명	1
동작 2와 드러나는 뜻	첫 동작과 다른 동작 하나를 위 세 동작 중 골라 그 뜻을 설명	1
두 동작으로 보여 주는 태도	상대가 실제로 이용할 조건을 고려하거나 이동을 돕는 태도에 연결함(1점). 대사를 생략해도 두 동작에서 그 태도를 짐작할 수 있음을 설명함(1점)	2

인정 범위·유의점 동작의 제시 순서는 달라도 인정한다. 예시 답안과 달리 옛 화살표를 떼는 동작과 두 길의 화살표를 붙이는 동작을 골라도, 처음 기준을 고쳐 실제 이용 상황을 고려한다는 뜻에 연결하면 인정한다. 같은 동작을 다른 말로 되풀이하면 동작 하나로 센다. 두 동작과 뜻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도 인정한다. 본문에 없는 행동만 제안하면 해당 동작 점수는 주지 않는다. ‘친절해진다’만 쓰고 실제 이용 상황과 연결하지 않으면 태도 점수는 주지 않는다.

연결 개념 극의 대사·지시문·소품·대비·태도 / E02

대사를 빼도, 두 동작이 태도를 보여 줌



작품 G 한눈 연결표 「화살표 하나」

근거(작품의 말)	개념	효과(무엇을 보여 주나)
첫머리 '앞쪽에는 계단이, 오른쪽에는 완만한 통로가 있다.'	극의 해설(무대 설명)	두 길이 있다는 조건을 알려 줌
〔나〕 '앞바퀴가 첫 계단에 닿는다.'	행동 지시문	문제를 관객 눈앞에 보여 줌
〔나〕 '참 친절하네. 갈 수 없는 길만 알려 주고.'	반어	겉말과 반대로 안내의 문제를 꼬집음
〔가〕 화살표 하나 → 〔다〕 화살표 둘	소품의 변화	갈등의 시작과 해소를 눈으로 보여 줌
〔다〕 떼어 냄·붙임·비켜 줌	행동으로 드러난 태도	상대가 실제로 이용할 길을 고려함

하나로 이으면 가까운 길 하나만 알리던 안내판이 수레 앞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유나가 두 길을 알리도록 바꾸면서 갈등이 풀린다.

Q36 해설

정답 ③

직접 근거

- H 〔나〕: 「문장의 앞부분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 H 〔다〕: 「이제 보니 나는 내 소리에는 너그럽고 동생의 소리에는 엄격했다.」

연결 판단 이 수필은 글쓴이가 직접 겪은 일인 체험과 그 일에서 얻은 생각인 깨달음이 어우러져 있다. 소리에 방해받아 문장을 다시 읽는 경험 뒤에 자기 기준의 불공평함을 판단한다. 두 부분이 이어져 경험에 붙인 생각을 드러낸다.

Q36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펜을 알아본 경험과 그 경험에 붙인 기준의 판단을 뒤바꾸었다.
②	× **적절하지 않음** — 딸깍은 펜 소리이고 부끄러움의 주체는 글쓴이이다. 표현의 대상과 판단의 주체를 바꾸었다.
③	○ **적절함** — 밖에서 일어난 행동·반응과 그 경험에 대한 자기 판단을 나누었다. ← 정답
④	× **적절하지 않음** — 자기에게 너그러웠다는 것은 글쓴이의 자기 판단이다. 끝의 행동은 그 성찰을 실천하는 쪽이다.

연결 개념 수필의 체험과 깨달음·성찰 / E03

Q37 해설

정답 ①

직접 근거

- H 〔나〕: 「그만하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던 때, 동생의 손에 들린 익숙한 펜이 보였다.」
- H 〔다〕: 「내 손에서 나면 배경으로 지워 버리던 소리를, 남의 손에서 나자 방해라고 불렀다.」

연결 판단 같은 종류의 소리를 다른 위치에서 경험한 일이 계기이다. 원인을 펜의 개조나 동생의 사과로 바꾸면 자기 기준을 성찰하는 흐름이 끊긴다.

Q37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함** — 다시 읽는 불편과 익숙한 펜의 발견을 자기 판단의 계기로 연결했다. ← 정답
②	× **적절하지 않음** — 그 말을 한 사람은 〔가〕의 글쓴이이다. 상대의 소리를 경험한 뒤 자기 기준을 돌아본다.
③	× **적절하지 않음** — 펜의 소리는 나고 있으며 자기에게도 방해가 되는 경험을 한다.
④	× **적절하지 않음** — 동생의 사과가 아니라 글쓴이가 자기 기준을 돌아보는 흐름이다.

연결 개념 경험·계기·성찰·판단 변화 / E02

Q38 해설

정답 ④

직접 근거

- H 〔다〕: 「내 손에서 나면 배경으로 지워 버리던 소리를, 남의 손에서 나자 방해라고 불렀다.」
- H 〔라〕: 「같은 소리가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던 내 기준부터 살피고 싶었다.」

연결 판단 같은 소리라는 제목은 물리적 크기가 측정상 완전히 같다는 자료가 아니다. 익숙한 펜 소리를 누구의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한 경험과 그 성찰에 연결한다.

Q38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하지 않음** — 같은 펜 소리에도 내 것과 남의 것에 다른 기준을 댄 점을 돌아본다.
②	× **적절하지 않음** — 주된 돌아봄의 대상은 글쓴이 자신의 기준이다.
③	× **적절하지 않음** — 서술된 변화의 주체는 글쓴이이다. 동생이 어떤 기준으로 바뀌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 **적절함** — 같은 펜의 소리와 다른 판단의 대비를 제목에 연결했다. ← 정답

연결 개념 제목·대비·중심 생각 / E01·E04

Q39 해설

정답 ②

직접 근거

- H 〔다〕 : 「동생을 참아 주는 사람인 듯 혼자 생각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 H 〔라〕 : 「다만 그 말을 하기 전에 내 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보았다.」

연결 판단 누가 돌아보고 부끄러워하는지 주체를 지킨다. 글쓴이가 자기 기준을 돌아보았다는 사실이 곧 동생도 같은 생각을 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Q39 선택지별 판단

선택지	판단 근거
①	○ **적절함** — 〔가〕의 두 반응을 비교하면 자기 소리와 남의 소리를 달리 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 **적절하지 않음** — 동생의 깨달음이나 부끄러움은 서술되지 않았다. 글쓴이의 성찰을 동생에게 옮겼다. ← 정답
③	○ **적절함** — 〔라〕에 그럴 일도 여전히 있었다고 밝힌다.
④	○ **적절함** — 〔나〕 '문장의 앞부분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에 그대로 근거가 있다.

연결 개념 판단 주체·고백·해석 범위 / E04

Q40 해설

서술형

예시 답안

요소	답
고백한 속마음과 근거	〔다〕에서 자신은 동생을 참아 주는 사람이라고 속으로 여겼지만 자기 소리와 동생 소리에 다른 기준을 댔음을 부끄러워한다. 남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털어놓는다.
성찰과 끝 행동의 연결	〔라〕에서 상대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 손을 살피고 버튼을 누르려던 손을 펴 놓는다. 남에게만 적용했던 기준을 자신에게도 돌려 보는 성찰이 행동으로 이어진다.

직접 근거

- H 〔다〕 : 「동생을 참아 주는 사람인 듯 혼자 생각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 H 〔다〕 : 「이제 보니 나는 내 소리에는 너그럽고 동생의 소리에는 엄격했다.」
- H 〔라〕 : 「그 뒤로 생각이 막히면 버튼을 누르려던 손을 펴서 탁자에 놓았다.」
- H 〔라〕 : 「다만 그 말을 하기 전에 내 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보았다.」

연결 판단 부끄럽다는 낱말만 찾기보다 무엇을 부끄러워하는지 구체화한다. 끝의 행동도 펜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소리와 행동부터 살피려는 태도에 연결한다.

채점 기준 · 4점

요소	인정 범위	배점
속마음	자신을 참아 주는 사람처럼 여기거나 자기 소리에만 너그러웠던 숨은 태도를 제시	1
고백 근거	〔다〕의 혼자 생각함·기준의 차이·부끄러움을 해당 속마음과 연결	1
성찰	남에게만 적용하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도 돌려 봄을 제시	1
끝 행동	버튼을 누르려던 손을 펴거나 요구 전에 자기 손을 확인한 행동을 성찰과 연결	1

인정 범위·유의점 '동생만 예민하다고 탓했던 자기 생각을 밝힌다', '자기에게 유리했던 기준을 인정한다' 등을 인정한다. '부끄러웠다'만 쓰고 무엇을 부끄러워했는지 밝히지 않으면 속마음 점수를 주지 않는다. '펜을 다시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끝 행동 해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연결 개념 고백적 성격·성찰·행동·주제 / E02·E04

고백한 속마음에서 성찰의 실천으로

숨겨 두었던 자기 평가 · 〔다〕
나는 동생을 참아 주는 사람이라고 여김

↓

깨달음과 고백 · 〔다〕
내 소리에는 너그럽고 남의 소리에는 엄격했음을 부끄러워함

↓

성찰의 실천 · 〔라〕
버튼을 누르려던 손을 펴 놓고, 요구하기 전에 자기 손부터 살핌

'나'라는 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백이라고 판단하지 않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백적 성격은 글쓴이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특성입니다. 일기장에만 적을 법한 부끄러운 속마음을 독자 앞에 꺼내 놓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신에게만 너그러웠던 기준을 솔직하게 밝힌 부분이 해당합니다.

작품 H 한눈 연결표 「같은 소리」

근거(작품의 말)	개념	효과(무엇을 보여 주나)
〔가〕 내 펜 소리는 '괜찮잖아', 동생 책장 소리엔 '조용히'	체험(겪은 일)	내 소리와 남의 소리에 다른 기준을 댐
〔나〕 동생 손에 들린 익숙한 펜	계기	입장이 바뀌어 같은 소리를 들음
〔다〕 '너그럽고 … 엄격했다', '부끄러웠다'	깨달음, 고백적 성격	자기 기준이 불공평했음을 털어놓음
〔라〕 손을 펴서 탁자에 놓음, 말하기 전에 내 손을 봄	성찰의 실천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자기부터 살핌
제목 「같은 소리」	제목과 주제	같은 소리에 다른 기준을 대던 자신을 돌아봄

하나로 이으면 같은 펜 소리를 남의 자리에서 듣고 자기 기준의 불공평함을 깨달은 글쓴이가, 그 깨달음을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자기 손부터 살피는 행동으로 옮긴다.